

최종보고서(안)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2013. 12.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박 광 무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음.



Contents

I . 계획의 개요

① 계획의 배경과 목적	3
② 계획의 범위	5
③ 계획의 위상과 성격	6
④ 계획의 수행 체계	8

II . 관광여건 변화와 전망

① 관광정책 환경 분석	13
1. 정치환경 변화	13
2. 경제환경 변화	16
3. 사회·문화환경 변화	19
4. 기술·자연환경 변화	25
5. 종합 분석	28
② 국내·외 관광시장 변화와 전망	29
1. 국제 관광시장	29
2. 국내 관광시장	34
3. 관광산업 현황 및 과제	46
③ 한국관광의 경쟁력 분석	52
1. 관광 경쟁력 평가의 의의	52
2. 한국 관광 경쟁력 평가 분석	52
3. 시사점	57
④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59
1. 분석 개요	59
2. 일본 「신성장 전략(~2020)」	60
3. 영국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	63
4. 호주 「중장기 관광발전계획(2020)」	65
5. 독일 「연방정부 관광정책(2013)」	67
6. 프랑스 「중장기 관광발전계획(2010~2020)」	69

Ⅲ. 관광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 평가

① 지난 정부의 관광정책 추진 현황	75
1. 관광정책 추진 현황	75
2. 제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 현황	84
② 지난 정부의 관광정책 성과 평가	88
1. 평가 체계	88
2. 평가 결과	89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94
③ 관광비전 및 향후 과제 전문가조사 결과	96
1. 관광 비전	96
2. 주요 추진과제	97

Ⅳ. 비전과 전략

① 박근혜 정부 관광정책 방향과 기초	103
1. 국정운영 방향	103
2. 관광 분야 국정과제	104
② 비전과 목표	105
1. 주요 정책 키워드	105
2. 2018 관광 비전	106
3. 정책 목표	107
③ 추진 전략	109
1. 부문별 추진 전략	109
2. 전략별 추진 방향	110



Contents

V. 부문별 정책과제

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115
1. 정책방향	115
2. 정책목표	115
3. 세부 정책과제	115
② 동북아 관광리더 위상 확립	145
1. 정책방향	145
2. 정책목표	145
3. 세부 정책과제	146
③ 품격과 활력 있는 지역관광 육성	184
1. 정책방향	184
2. 정책목표	184
3. 세부 정책과제	185
④ 고부가 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	211
1. 정책방향	211
2. 정책목표	211
3. 세부 정책과제	212
⑤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234
1. 정책방향	234
2. 정책목표	234
3. 세부 정책과제	235

VI. 추진계획

①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259
1. 정책방향	259
2. 정책목표	259
3. 세부 정책과제	260
② 투자계획	266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의 위상과 성격
4. 계획의 수행 체계

1. 계획의 배경

■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의 전환, 문화융성

-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
-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신정부의 관광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책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요구

- 최근 대두되는 관광 분야 일자리 확충, 관광산업 육성, 관광객 지방 분산 등 현안 과제 해결과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등 국민 경제의 실질적 기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12년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를 달성하였으나 향후 경제 상황과 국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의 양적 확대 정책 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고려한 선순환 구조 확립 요구

■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전반의 재정비 요구

-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진입과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관광수요의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한 관광산업의 시스템 구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
-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하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관광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계획

■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형 관광정책 아젠다 발굴 필요

- 관광산업의 창조경제 발현,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외연 확대 등 국정목표의 달성을 위한 관광정책의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 관광정책에 대한 창조적 시각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미래 비전과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도출하여 ‘선도형(first mover) 관광정책’의 토대를 마련

2. 계획의 목적

■ 신정부 관광정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도출

- 신정부의 국정기조 및 국정목표에 대한 관광 분야의 정책적 재해석과 미래의 관광정책 추진 여건 분석을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관광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

■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관광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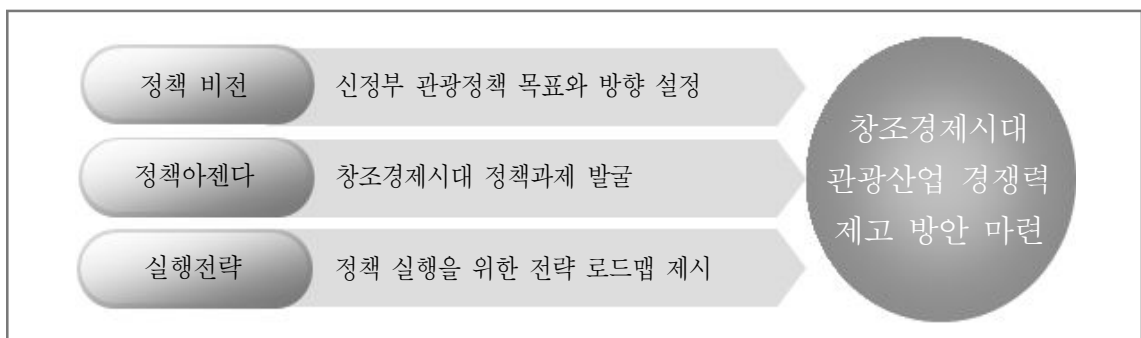
-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신정부의 중장기 관광비전과 정성적·정량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

■ 관광정책의 창조적 접근을 통한 추진과제 발굴

- 관광정책에 대한 창조적·융합적 접근을 통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관광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달성 로드맵을 제시

■ 관광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여건 조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관광산업 발전전략을 제시



2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전국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4 ~ 2018년(5년)
- 연구수행기간 : 2013. 6월 ~ 2013. 12월
- 기준년도 : 2012년

3. 내용적 범위

계획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성격 및 위상 • 국정기조의 관광 분야 재해석 • 계획 수립의 의의 및 기대효과
정책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환경 변화 및 트렌드 분석 •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분석 • 관광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 평가 • 종합분석 및 계획 과제 도출
관광비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 • 관광정책 추진목표 설정 • 정책 추진 전략 수립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전략 도출 • 부문별 정책과제 도출
추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1. 성격 및 역할

■ 관광기본법에 근거한 행정계획

-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4~2018)은 ‘관광기본법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수립되며, 향후 5년 간 (2014~2018)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계획

「관광기본법」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정부는 관광진흥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 박근혜정부의 국정 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는 관광분야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 관광진흥을 위한 5년 주기의 중장기 실행계획

- 중장기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실행계획

실효성

-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계획

총체성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지속성

- 중장기적 관점의 관광정책 실행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 연속성과 차별성

■ 「제1차 및 제2차, 제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후속 계획

- 5년 주기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기존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과의 연속선상에서 기존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연속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 과제 도출
- 기존 관광정책 추진현황 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

구분	2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2004~2008)	3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2009~2013)
비전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관광한국	동북아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부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 -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 내실있는 관광산업 - 세계인이 매력을 느끼는 관광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경험,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과 관광객 - 세계속의 관광한국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 방방곡곡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정책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활관광 환경 조성 -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 국민의 관광소비능력 향상 -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지역간 연계개발 - 관광개발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 관광산업 투자유치 촉진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한국 이미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 관광기반시설의 양적 확대·질적 수준 제고 - 한국브랜드상품·전략시장별 관광상품 개발 - 출입국 절차 및 국제관광교통체계 개선 - 동북아 및 남북 관광교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요의 확대로 산업발전 기반 마련 - 창의와 혁신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녹색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 한국관광 명품콘텐츠 창출로 관광매력도 제고 - 관광한국의 이미지 창출로 관광객 유치 확대

1. 계획 수행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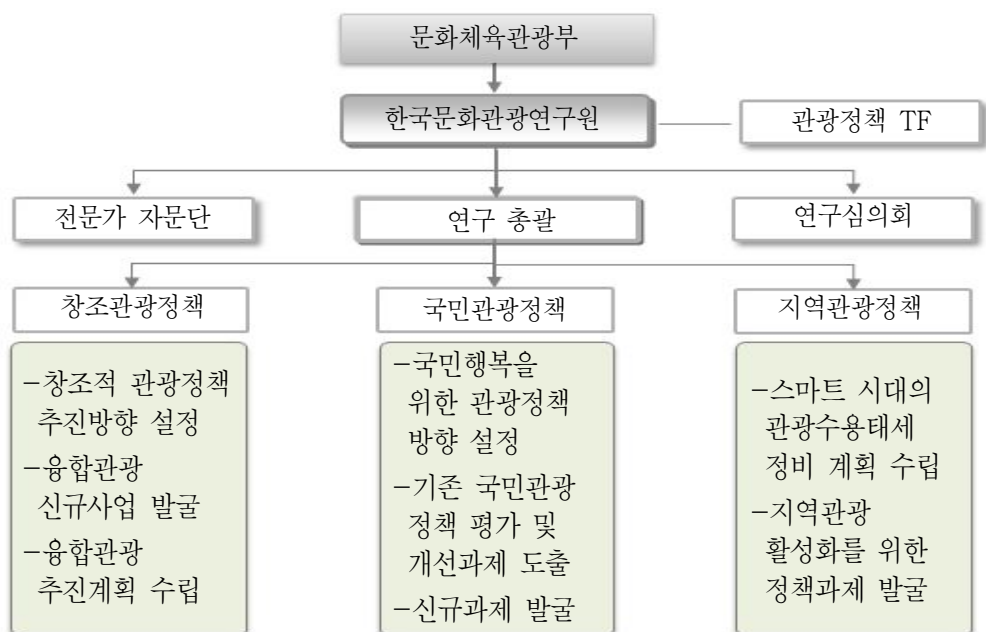
- TF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 및 세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실행력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정책의 방향 설정 및 관광정책 분야별 정책과제 설정을 위하여 실무 연구조직과 별도의 자문기관인 '새 관광정책 TF' 운영
- 관광정책 TF는 계획의 전 단계에서 관광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실무 연구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연구를 지원

■ 전문가 자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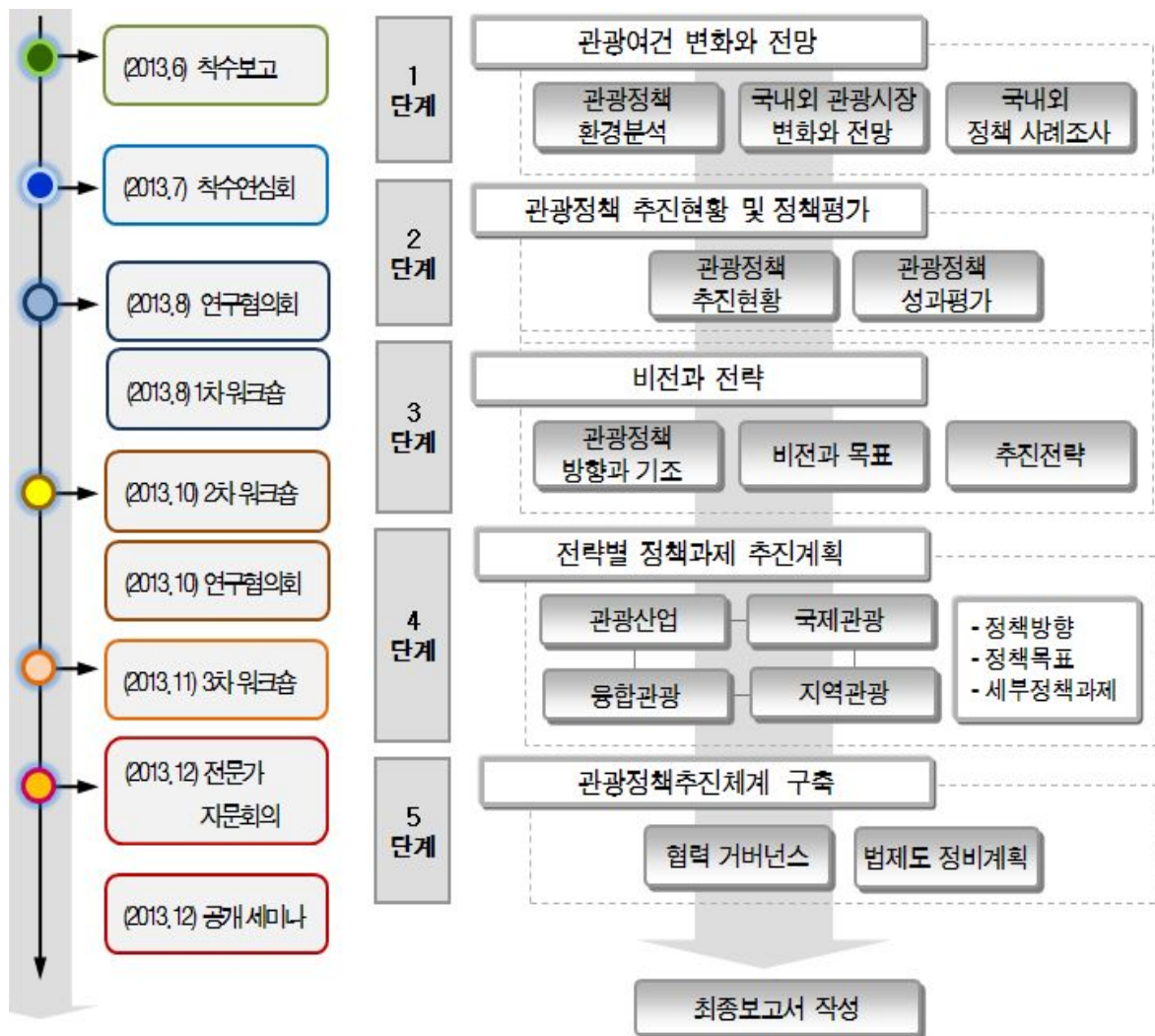
- 융합적 관점에서 관광 및 관련 분야의 정책 아이디어와 연계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



[그림 I-1] 계획의 수행 체계

2. 계획 수행 과정

-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료분석 및 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함
- 본 계획은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정책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함



[그림 I-2] 계획의 수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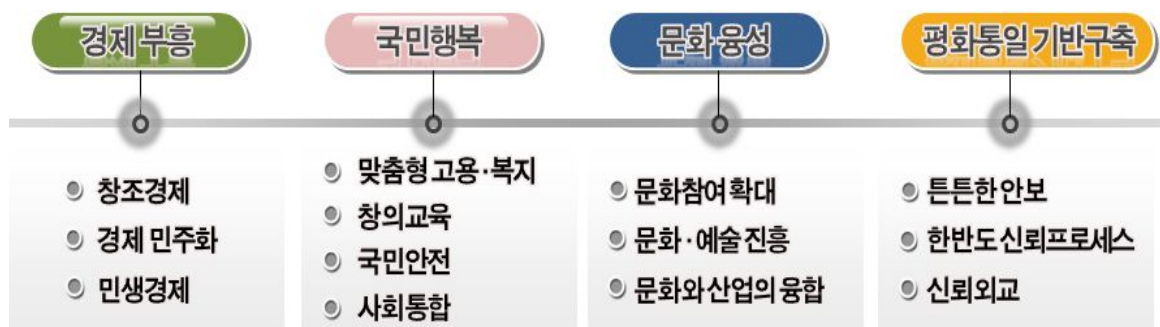
II. 관광여건 변화와 전망

1. 관광정책 환경 분석
2. 국내·외 관광 시장 변화와 전망
3. 한국관광의 경쟁력 분석
4.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1. 정치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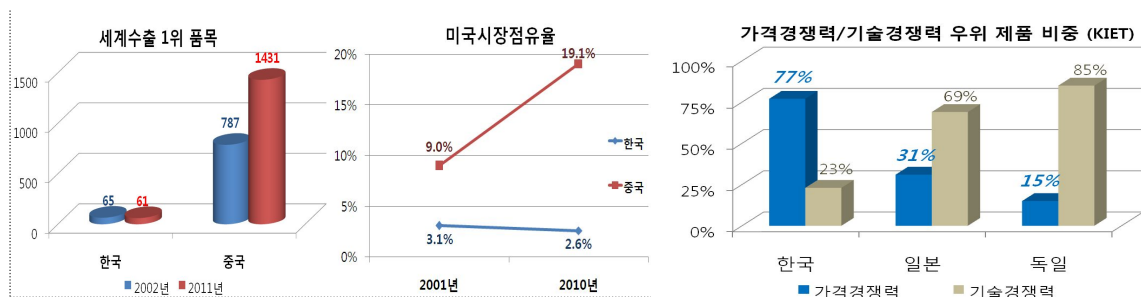
■ 국정기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의 국정비전으로 경제 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4가지 국정기조를 설정함
 - 경제부흥은 창조경제, 경제 민주화, 민생경제의 3대 전략으로 창조 경제 생태계, 과학기술ICT, 벤처중소기업, 원칙이 바로선 경제, 서민생활안정, 안정적 경제운영 등의 42개 과제 설정
 - 국민행복은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의 4개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범죄로부터 안전, 통합과 화합, 지역균형발전 등 64개 과제 설정
 - 문화융성은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예술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3대전략으로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지원, 인문정신 문화 진흥, 콘텐츠 산업육성 등 10개 과제 설정
 -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외교 3대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 등 13개 과제 설정



■ 창조경제 대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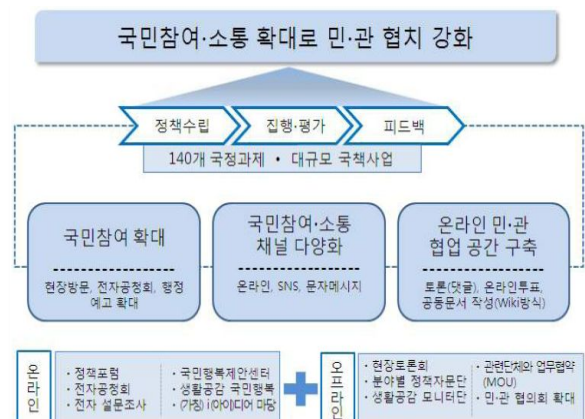
-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체질 개선 시급하며 창의·융합역량을 지닌 글로벌 전문기업 군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스마트·소프트화 등 新트렌드 부상으로, 개별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과 혁신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추세임
- 따라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되어야 함
 - 중국, 일본 등 신흥국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지속되고, 해외 대비 전문기업이 부족한 상태이며, 기업의 글로벌 역량은 계속 정체 상태임



자료 :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 거버넌스 협력 강조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체 협치 사례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 협치 강화
 - 현장방문, 현장토론회, 온라인 정책토론 및 전자공청회 등 활성화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개편, 분야별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확대



1) 산업통상자원부(2013), 업무보고 참조

-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해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함
 - 국정과제(140개) 및 협업과제(170개) 중 부처 간 시스템 연계·통합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전자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
- 부처 간 이해 상충 수준이 높은 '조정과제'지원을 통해 ODA, 유아교육·보육 통합, 물관리,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협업수행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기능 조정에 반영, 관련 부처 간 핵심직위(국·과장급) 인사교류 등 지원함
-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협력과제'지원을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별 시스템 연계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 간 협업 지원함

■ 남북경제 관계의 전망²⁾

- 2013년 한반도 신로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서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 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기여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함
- 북한은 남북경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국과의 경협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전 정부에서 남측 기업인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특혜적 조건들을 제공할 필요성이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5.24 제재조치의 해제, '6.15 남북정상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과 같은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문제를 마련되 기만 하면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제한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 산업연구원(2012), 2012 북한 경제 종합평가 및 2013년 전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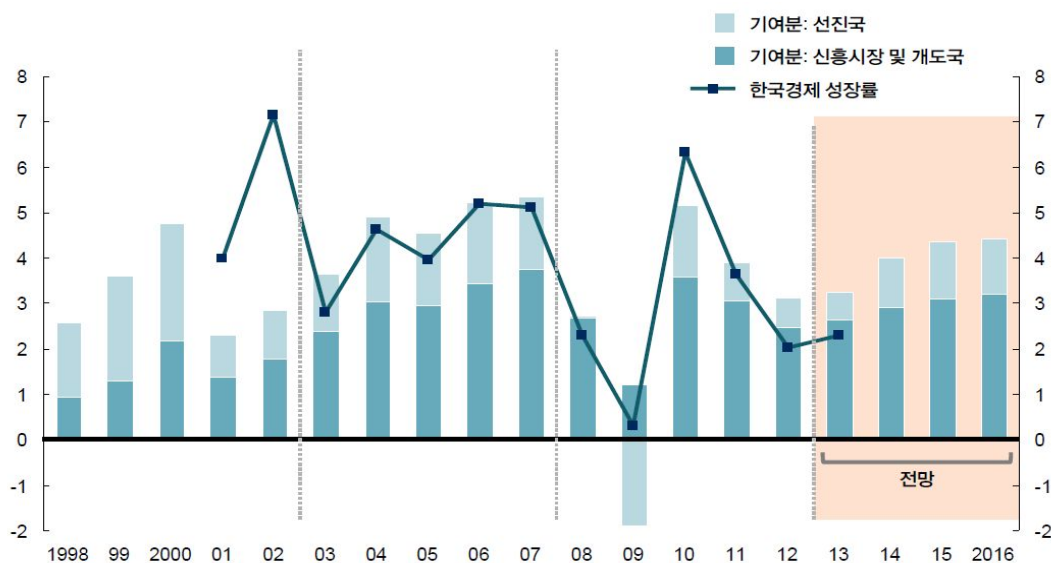
2. 경제환경 변화³⁾

■ 전 세계적 경기침체 지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세계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대로 하락하는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음
- 일본의 버블붕괴, 미국의 9.11테러 이후 경제성장 급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등은 해외 주요국의 저성장 경제 고착화를 야기함

■ 아시아와 주요 신흥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 경제 신흥국들은 1990년대부터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해오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는 현재 전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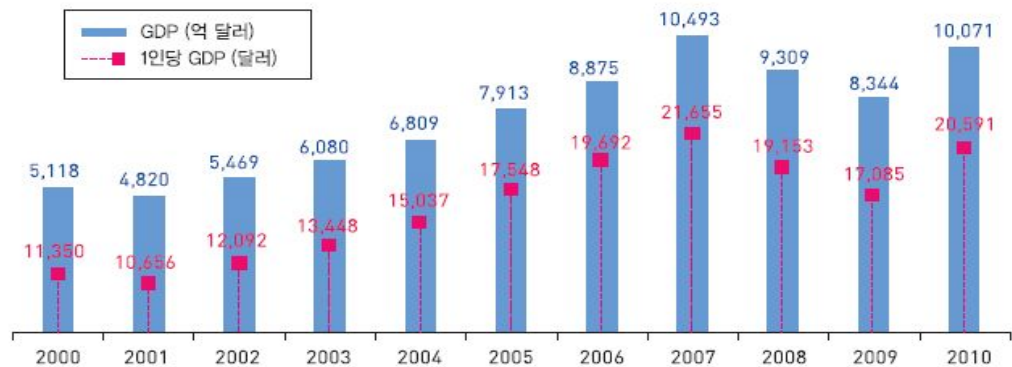
자료 : IMF(201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그림 II-6]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경제 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참조

■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저하로 低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로 성장과 국민행복 간 괴리는 심화

- 한국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래 7.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3~4%대에 머물러 있어 일시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명목 GDP는 약 2배, 1인당 GDP는 약 1.8배 증가하였음
 - 2005~2020년 기간 중 한국의 잠재 GDP성장률은 연평균 4.3%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선당 예상(미래기획위원회:KDI, 2008)
-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DP와 1인당 GDP 모두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한국의 국내 경기 또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음
- 개인의 실질순처분가능소득(Net disposable income)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1999년 중 5.2%에서 2000~2009년 중 2.1%로 하락하였다가 2010~2012년 2.6%로 소폭 상승



자료: 한국은행(2012). 국민계정, IMF(2013).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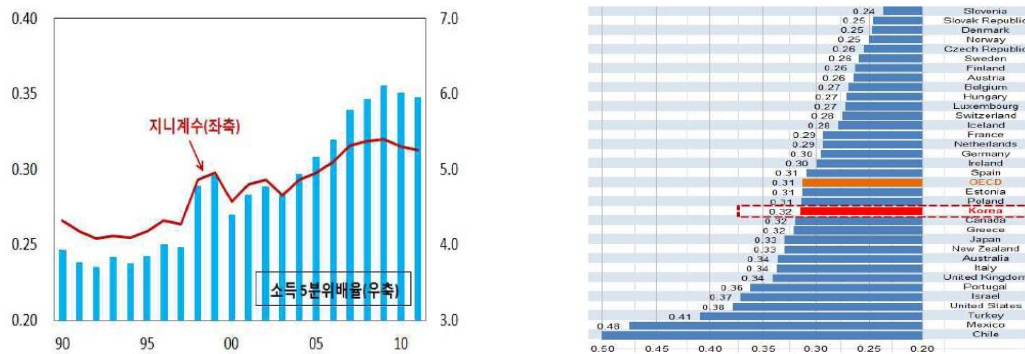
[그림 II-7] 우리나라 GDP 및 1인당 GDP추이

<표 II-1> 가계소비 부진의 기간별 비교

구분	(단위 : %)		
	90~99년	00~09년	10~12년
실질GDP(A)	6.6	4.4	4.0
개인 실질NID(B)	5.2	2.1	2.6
격차(A-B)	1.3	2.2	1.4

자료 : 한국은행(2012).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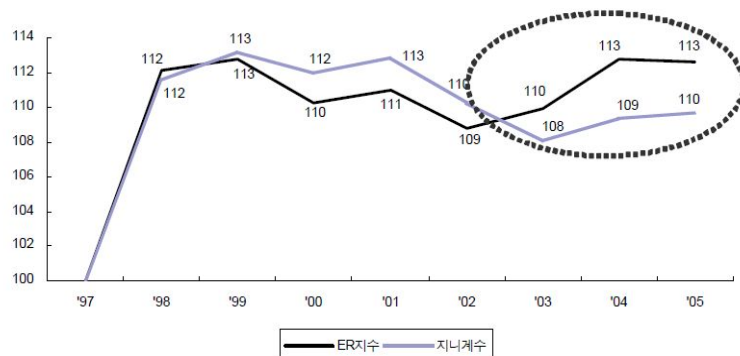
-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해 실질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면에 중산층 붕괴라는 말과 함께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임시직·일용직 비중 확대 등 노동시장 고용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이 상승함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0.31)을 소폭 상회하여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자료 :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2011

[그림 II-8] 지니계수 및 소득 분위 배율 추이(①) 및 OECD 국가별 지니계수 비교(②)

- 일자리 양극화 등에 의한 중산층 위축 및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 확대에 따라 소득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소득양극화 지수와 소득불균형지수(지니계수) 비교 시 2003~2005년 3년간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소득불균형 현상보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출



주: 지니계수와 ER지수 모두 1997년의 수치를 100으로 표준화하여 계산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6). 소득양극화 현황과 원인

[그림 II-9] 소득양극화 지수 및 소득불균등 지수 추이 비교

3. 사회·문화환경 변화

■ 세계 인구 급증

- 2050년 전 세계 인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93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유엔 경제사회국(DESA): 2012세계 인구전망)
- 2010년 약 70억 명인 세계인구가 40년 후인 2050년까지 23억 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UN DESA,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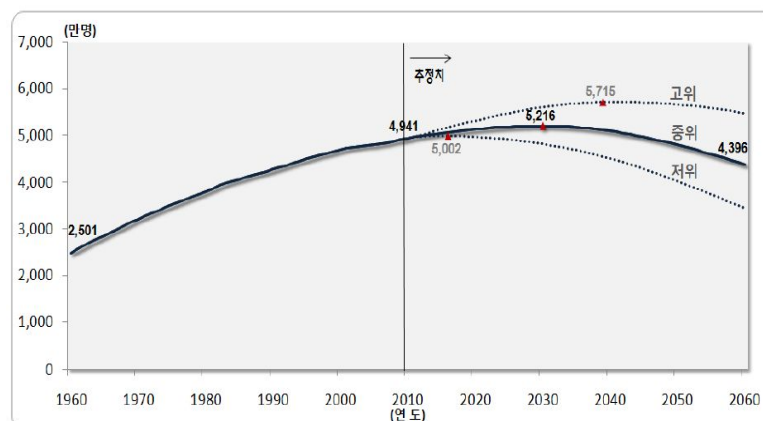
<표 II-2> 세계인구 발달 전망

(단위:천명)

구분	2010	2020	2030	2040	2050
세계인구	6,908,687	7,498,821	7,855,775	8,024,592	7,958,779
아프리카	1,033,043	1,248,823	1,444,512	1,618,595	1,748,403
아시아	4,166,741	4,487,934	4,643,025	4,663,701	4,533,451
유럽	732,757	717,639	687,943	652,361	608,813
중남미	588,649	629,545	648,583	648,466	625,884
북미	351,659	375,350	389,427	397,138	396,926
오세아니아	35,838	39,474	42,284	44,331	45,304

자료 : UN Population Division(2008).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11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 이후 감소하여 2060년 4,39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이는 독신가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한 가구원 수 감소로 인한 핵가족화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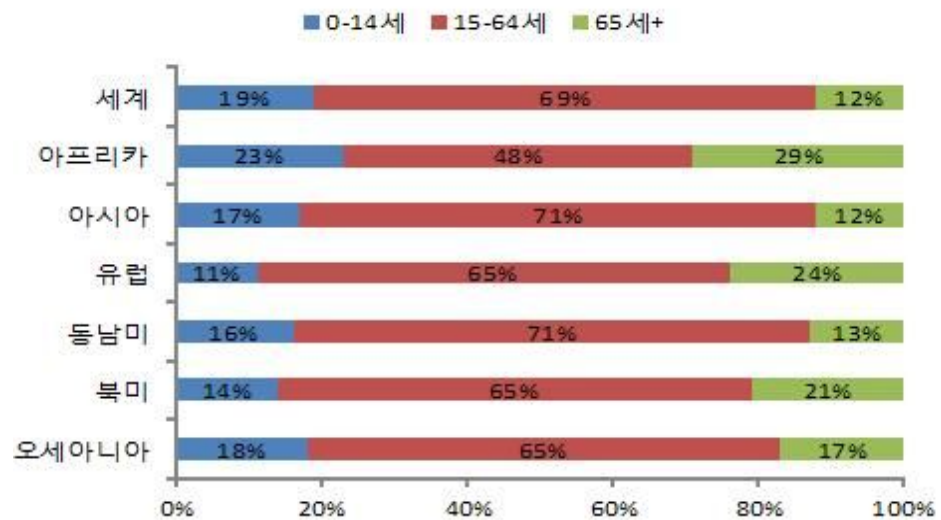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그림 II-10] 인구 성장 가정별 총인구 전망, 1960-2060

■ 고령화 사회 가속화

-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2030년 유럽과 북미는 초고령화 사회, 오세아니아는 고령사회, 아시아와 중남미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임⁴⁾(UN DESA, 2008)
- 유엔 경제사회국(DESА) ‘2012 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60세 이상 인구도 4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UN DESA, 2013)



자료 : UN Population Division(2008). World Population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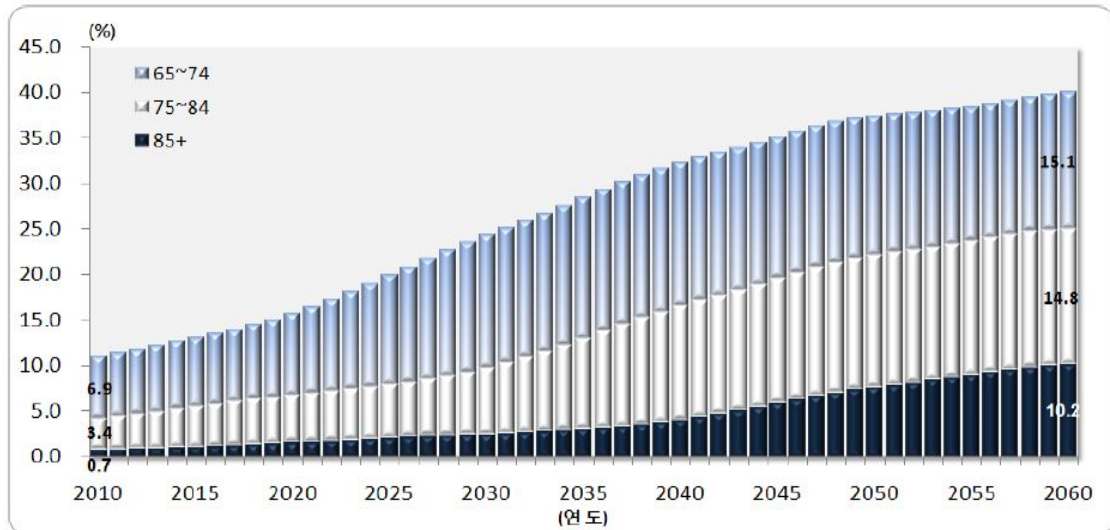
[그림 II-11] 2030 세대별 인구 구성 예측

- 선진국의 인구고령화 추세와 함께 세계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의 가속화가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의 선진국은 노동인력 부족이, 의료·보건환경이 개선된 일부 개도국은 젊은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생산의 중심이 낮은 인건비와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유한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국제 분업구조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 명(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10년 535만 명(11%), 2030

4)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

년 1,269만 명(24.3%), 2060년 1,762만 명(40.1%)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 명(0.7%)에서 2060년 448만 명(10.2%)로 10배 이상 증가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그림 II-12] 총인구 대비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 전망, 2010-2060

■ 출산율 감소 추세

-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 그러나 신흥경제성장국가(BRICs)의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서방선진국은 1980-90년대 저출산 추세를 유지하다 2000년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이민국가인 미국을 제외하면 2010년 대체출산율(2.1명) 이하 수준
 - 반면 BRICs는 지난 30여 년간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 인도는 1980년 4.47명에서 2010년 2.54명까지 급감했고, 브라질은 1980년 3.8명에서 2005년 이후 대체출산율 이하 수준으로 감소
- 또한, 1980~2010년 한국 출산율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2015년에 상승하였으나, 2010-2015년 출산율 상승은 주요 국가별 출산율이 가장 하위 수준에 있음
 - 한국의 경우 2009년 1.15%에서 2010년 1.23%, 2011년 1.24%, 2012년 1.30%로 최근 3년 동안 출산율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3> 주요 국가별 합계출산율 (1980-2015)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	러시아
1980-1985	2.30	1.80	1.87	1.78	1.46	1.75	4.47	3.80	2.61	2.04
1985-1990	1.58	1.89	1.80	1.84	1.43	1.66	4.11	3.10	2.63	2.12
1990-1995	1.67	1.99	1.71	1.78	1.30	1.48	3.72	2.60	2.01	1.55
1995-2000	1.52	1.96	1.76	1.74	1.34	1.37	3.31	2.45	1.80	1.25
2000-2005	1.25	2.04	1.88	1.66	1.35	1.30	2.96	2.25	1.70	1.30
2005-2010	1.16	2.07	1.97	1.83	1.36	1.32	2.73	1.90	1.64	1.44
2010-2015	1.23	2.08	1.99	1.87	1.46	1.42	2.54	1.80	1.56	1.53

자료 : UN(2010), World Population Prospects,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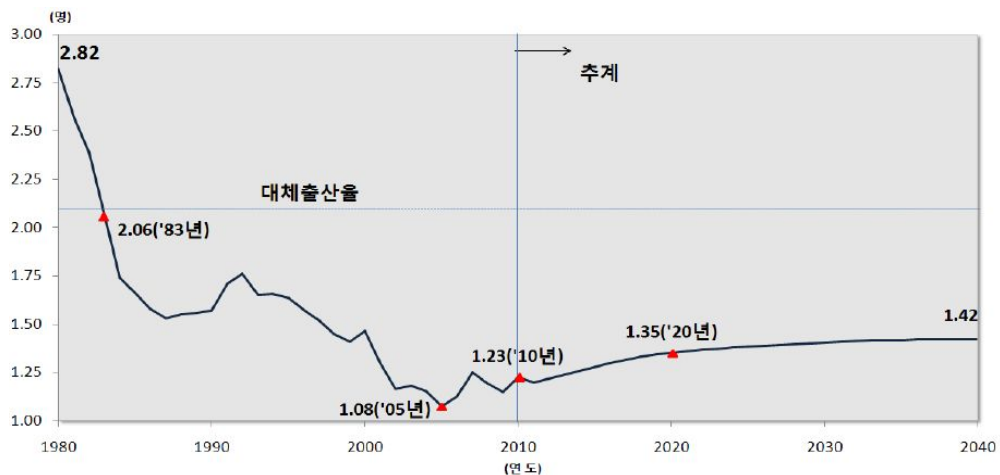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감소하여 2010년 1.23명 수준임
- 2005년 1.08명의 최저출산율을 기록한 후 최근 소폭 상승
-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초혼연령의 상승 및 미혼율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표 II-4>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와 전망, 1983-2040

(단위: %)

구분	1983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합계출산율(명)	2.06	1.57	1.47	1.23	1.35	1.41	1.42
출생아수(천명)	769	650	635	470	451	409	325

자료 : 통계청(2012).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자료 : 통계청(2011).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그림 II-13] 합계출산율 추이와 전망 (1980-2040)

■ 신한류 열풍의 확산

-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 일본, 대만, 홍콩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드라마 중심의 한류에서 2000년대 후반 K-POP이 중심이 되는 '신한류'는 미주, 중동,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세대의 구분 없이 확대됨
- 한류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것으로 분석(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09)되는데, 이는 시기별·주요 분야(콘텐츠)별·주요지역별로 특징지어 구분할 수 있음
- 21세기가 창조의 시대라고 할 때 창조적 역량은 교육·기술·과학·문화 영역에서 크게 발현되는데, 한류는 문화를 응용한 영역임
 -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제조업과 IT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첨단 융합기술에 한류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접목한 분야가 한국경제 전반을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됨
- 2010년도 한류의 생산유발 효과는 4조 9,824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약 1조 원이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년대비 4,532억 원 에서 1조 9,192억 원으로 상승되었으며, 한류의 취업유발효과는 51,545명으로 2009년도에 비해 15,888명이 상승함
- 2010년 한류의 생산유발 효과가 상승한 것은 관광의 파급효과가 1조 5987억 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했기 때문이며, 반면 음악과 영화 등은 한류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총액이 적어 생산유발효과가 타산업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남⁵⁾

<표 II-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백만 원, %)

한류효과	연도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8	2009	2010		
생산유발효과	4,933,688	3,960,623	4,982,470	25.8	0.5
부가가치유발효과	1,713,952	1,466,022	1,919,254	30.9	5.8
취업유발효과	12,503	35,657	51,545	44.6	103.0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1). 2010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 윤리적 소비문화의 등장과 변화 하는 기업

5)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1). 2010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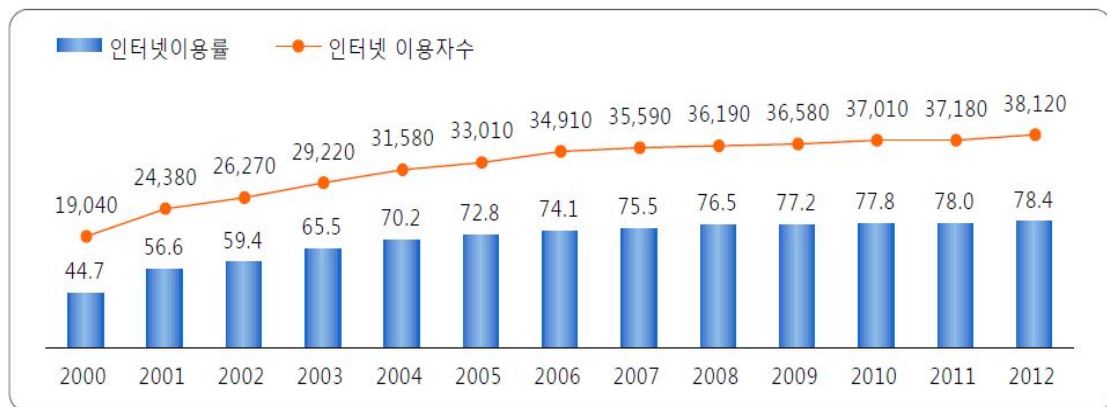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공생·상생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확산된 윤리적 소비활동 추구 성향은 사회 공익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관광산업에도 윤리적·친환경적 소비활동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남
-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활동 추구 성향이 확산되면서 단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공익을 위한 노력하는 기업이 확산되고 있음
 -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값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여 무역 악순환을 극복하는 공정무역이 시작됨
 - 해외 다국적 식품업체들의 GMO와 농약으로 오염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함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강화를 인식함
 - 소비가 공익가치 실현으로 이어짐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코즈마케팅(Cause Marketing)이 등장함
 - 국내에 2007년 등장한 사회적기업은 2012년 4월에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소비문화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본격적 전개
- 여행상품 분야에서도 아름다운 여행의 대가는 그 땅을 지켜온 현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책임여행이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여행의 개념으로 확산됨
 - TIES(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는 1990에 조직된 비영리단체로 생태 및 문화의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위한 국제회의 및 교육,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착한여행, 트래블러스맵 등 공정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이 등장하고 있음
- 또한 숙박시설, 요식업 등의 관광분야에서도 윤리적인 소비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요리 교육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오가니제이션 요리(오요리)', 친환경밥상을 지향하는 '문턱없는 밥집', 다문화가족이 운영하는 다문화 음식점 '다림춘' 등의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함

4. 기술·자연환경 변화

■ 스마트생태계 구축

- 세계 인터넷 시장의 확산과 함께 1982년 인터넷 최초 접속 성공 이후 30년을 맞은 한국은 빨라진 데이터 전송속도만큼이나 크게 변화한 생활 속 인터넷 환경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하게 됨
- 정치, 경제, 예술·문화, 사회 전반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개입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 상용화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음
 - 정보의 확산 중심축 역할을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주류로 부상하고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온라인 영화·음악, e-러닝, e-뱅킹 등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단위: %, 천명)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II-14]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 IT기술력의 진화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변화

- 2000년대 초 가정, 연구실, 사무실 등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시작된 우리사회의 정보화는 이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유비쿼터스의 시대로 돌입함
- 새로운 IT 기술의 등장은 젊은 시대의 전유물이었던 예전과는 달리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전 연령층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 IT기술력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신기술의 빠른 도입은 이제 편리함을 넘어 생활 속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 이는 IT기술 보급을 더욱 가속화함과 동시에

소비가 재미를 통한 문화향유의 수단이 되고 있음

- 터치스크린은 쉽고 편리한 기기 사용은 물론 이를 이용한 게임 프로그램 개발로 재미요소를 제공함
- 태블릿 PC와 같은 이동성을 강화시킨 제품들로 언제 어디서나 답답함 없이 재밌게 인터넷, SNS,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IT 기술을 접목시킨 일반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이를 모두 연동시키는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될 예정임
- 앱 기술을 통한 혁신은 정보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휴대성이 강조된 기기들과 결합되어 편리함은 물론 정보와 문화의 향유 범위를 확장시킴

■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요구 강화

-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나타난 기후변화가 대규모 지진, 해일 등의 재해로 나타나 생태계, 산업·경제는 물론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 IPCC의 보고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1900년 이후 60년간은 0.14°C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1960년 이후 45년간은 이 전 기간의 4배가 넘는 0.60°C 나 상승(IPCC, 2007)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보다 더 심각하여 1900년 이후 6대 도시의 평균기온이 1.5°C 나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기상청, 2008).
- 기후변화는 홍수, 폭우, 가뭄, 생태계 변화, 해수면 상승, 물 부족 등 다양한 기상이변 및 재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6.4°C 상승하고 전 세계 해안의 30%가 침수하는 등 재앙수준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IPCC, 2007)
-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업별·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전분야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및 대응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국무총리실, 2008; 신용석, 2010)
- 관광산업은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직·간접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기후 민간 산업이며, 기

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음
(UNWTO, UNEF & WMO, 2008; Wall, 2007)

- UNWTO, UNEF & WMO(2008)에 따르면, 관광부문은 지구전체 CO2 배출량의 5%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 지속가능성의 일부분으로서 기후변화를 고려할 경우 기후영향 및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와 기후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 향후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국제적 규제 강화,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따라 녹색산업은 향후 정보통신, 바이오와 함께 주요 성장산업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노믹스(Greenomics)산업 등장)정보기술(IT)과 환경, 에너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리노믹스(Greenomics)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
- 그리노믹스(Greenomics)란 ‘환경(Green)’과 ‘경제학(Economics)’의 결합어로 환경에 기반을 두고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경제학을 말함

5. 종합 분석

- 관광환경 변화 전망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자연 등의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종합분석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구 분	변화 양상	대응 방안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체질 개선 시급 • 주변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한반도 안보 지수 악화 • 거버넌스 환경 성숙 및 효율적 정보 변화 필요 • 지방정부의 재정 부실 문제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개인, 정부, 기업 등 주체 간 상생력을 위한 관광정책 필요 • 국제관광협력 강화로 불확실성 극복 • 관광홍보, 마케팅 측면의 새로운 방안 모색 • 지역관광발전의 발전 모멘텀 마련 필요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관광시장의 경쟁 심화 • 전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 아시아 및 주요 신흥시장의 부상 • 경제성장과 소득 불균형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관광시장의 새로운 수요흡수를 위한 한국의 차별적 관광상품 개발 필요 • 가격경쟁력으로 관광산업 발전 유도 •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융합 아이템 발굴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중심 여행, 레저문화 형성으로 다양한 레크레이션 요구 증대 • 노동력 및 생산성, 사회 활력 감소, 분야별 여성 고용인력 활용 가능성 확대 •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력 증대와 개별화·다양화된 시장 변화 • 한류 열풍의 확산 및 윤리적 소비문화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개인을 아우르는 관광문화 형성 필요 • 새로운 관광수요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신(新)관광상품 필요 • 여가생활에 대한 관광산업 분야 지원 필요 •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성 증대
기술·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력의 진화를 통해 라이프스타일로 변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확산 • 관광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주도 경계 • 휴대성이 강조된 정보와 문화향후 범위 확대 • 전세계적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기후 변화위기에 따른 녹색산업, 녹색소비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관련 정보제공 서비스와 IT기술 연계로 소비자 편의 도모 • 녹색기술과 관광산업간 융·복합 관광정책 수립 • 그리너비즈니스, 그린슈머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정책 추진

1. 국제 관광시장

가. 국제 관광시장 분석

■ 국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2년 국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0억 3500만 명으로, 2012년 최초로 국제관광객 수 10억 명을 달성함
- 국제관광 수입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조 750억 달러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함

<표 II-6> 세계관광 성장 추세

(단위: 백만 명, %, 십억 달러(US\$))

연도	관광객		관광수입	
	관광객 수	성장률	관광수입	성장률
2008	929	2.0	944	9.8
2009	894	-3.8	855	-9.4
2010	949	6.2	930	8.8
2011	995	4.8	1,42	12.0
2012*	1,035	4.0	1,75	3.2

자료: UNWTO(2012), World Tourism Barometer(Vol.11, interim update June 2013)

주)2012*년은 잠정치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년대비 관광객 7.1%, 관광수입 8.1% 성장

- 2012년 연도별·지역별 세계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유럽지역은 5억 3,4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억 3,360만 명, 미주는 1억 6,31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였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 관광객 수는 2010년 이후 13.2%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중동지역은 5개 대륙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여, 2011년 수치보다 7.6% 감소한 5,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음

<표 II-7> 연도별/지역별 세계관광객 수

(단위: 백만 명, %)

구분	관광객 수					성장률	
	2008	2009	2010	2011	2012*	12/08	12*/11
전세계	917.0	882.0	952.0	995.0	1,035.0	12.9	4.0
유럽	485.2	461.0	487.6	516.8	534.7	10.2	3.5
아시아·태평양	184.1	181.1	205.1	218.1	233.6	26.9	7.1
미주	147.8	140.7	150.3	156.3	163.2	10.4	4.4
아프리카	44.4	46.7	49.8	49.2	52.9	19.1	7.5
중동	55.2	55.2	59.2	55.3	51.1	-7.4	-7.6

자료: UNWTO(2012), World Tourism Barometer(Vol.11, interim updata June 2013)

주) 2012*년은 잠정치임

■ 관광수입

- 2000년 이후 4천8백억 달러에서 2012년 1조 75십 억 달러로 세계 관광 시장의 관광수입 규모는 약 2배 증가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보임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관광수입도 관광객 수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기준 세계 관광수입의 30.1%을 차지해 2009년 대비 6.2%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2위의 관광시장으로 급부상함

<표 II-8> 연도별/지역별 세계 관광수입

(단위: 십억 달러(US\$), %)

구분	관광수입					성장률	
	2008	2009	2010	2011	2012*	12/08	12*/11
전세계	944.0	852.0	928.0	1,041.0	1,076.0	14.0	3.4
유럽	473.5	411.5	409.5	464.3	453.4	-4.2	-2.3
아시아·태평양	207.6	203.8	255.6	299.7	323.9	56.0	8.1
미주	188.1	165.9	180.7	198.3	212.6	13.0	7.2
아프리카	30.2	28.2	30.5	32.7	33.7	11.6	3.1
중동	45.0	42.2	52.2	46.6	47.2	4.9	1.3

자료: UNWTO(2012), World Tourism Barometer(Vol.11, interim updata June 2013)

주) 2012*년은 잠정치임

주) 성장률은 자국화폐 불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국가별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 UNWTO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국가별 관광 수입은 미국이 126.2억 달러로 가장 많고 스페인이 55.9억 달러로 2위이며, 그 뒤로 프랑스, 중국, 마카오, 이탈리아 순임

<표 II-9> 국가별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순위

순위	2012년 관광객 수 (백만명)		2012년 관광수입 (십억 불)	
1	프랑스	83.0	미국	126.2
2	미국	67.0	스페인	55.9
3	중국	57.7	프랑스	53.7
4	스페인	57.7	중국	50.0
5	이탈리아	46.4	마카오(중국)	43.7
6	터키	35.7	이탈리아	41.2
7	독일	30.4	독일	38.1
8	영국	29.3	영국	36.4
9	러시아	25.7	홍콩(중국)	32.1
10	말레이시아	25.0	호주	31.5
-	한국	11.1	한국	14.2

자료: UNWTO Tourism Highlights 2013 Edition, 세계 순위는 국가별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출

■ 러시아·동남아 등 주요 신흥시장의 부상

- 세계경제는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 21세기 중반 중국·아시아 시대로 역사적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일본·한국 중심의 팍스아시아나(Pax Asiana)시대 도래
 - 중국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일본은 개별관광 비자 요건완화, 의료관광 비자 도입 등 중국 관광객의 수요와 관광패턴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류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 확대 및 신규 취향·증편 등 항공 좌석 증대, 아시아 국가 경제 성장 등에 힘입어 방한 시장 지속성장 예상
 - UNWTO는 아태지역이 2030년까지 평균 4.9%증가할 것으로 예측
- 또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와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등의 국가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에서 BRICs의 GDP비중은 2020년 25%에서 2030년 33%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표 II-10> 신흥시장의 방한 관광객 수

(단위: 명, %)

구분		관광객 수					성장률	
		2008	2009	2010	2011	2012*	12/08	12*/11
아시아	인도	73,130	72,779	86,547	92,047	91,700	25.4	-0.4
	몽골	42,557	38,446	41,958	48,004	61,116	43.6	27.3
중동	터키	12,574	12,409	16,320	17,298	19,290	53.4	11.5
	우즈베키스탄	23,574	16,353	23,711	31,050	42,246	79.2	36.1
미주	멕시코	6,252	5,472	7,934	8,359	10,026	60.4	19.9
	브라질	9,844	10,145	12,747	14,639	15,761	60.1	7.7
구주	러시아	136,342	137,054	150,730	154,835	166,721	22.3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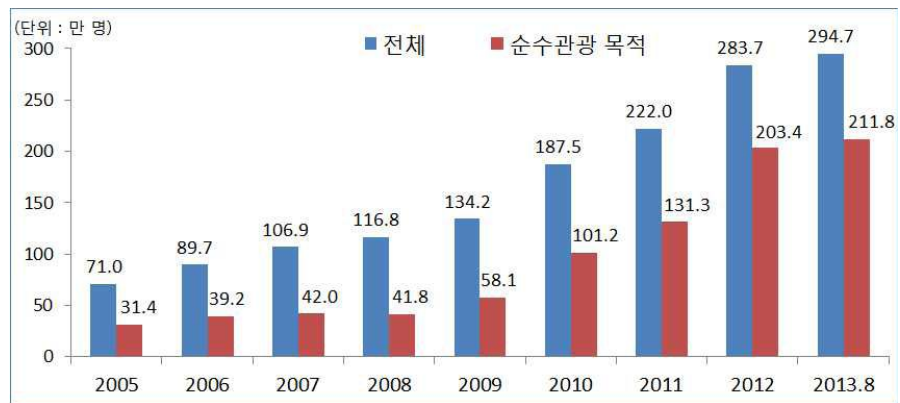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각 년도, 관광통계

■ 중국 여유법(旅遊法)시행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 '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명으로 전년대비 52.5% 증가, 전체 외래관광객 12,175만명의 35.5% 차지하였으며 제1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
- 중국 여유법 시행('13.10.1)으로 방한 단체관광 상품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중국 여유법 영향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춘절중 입국 증가율(20.8%)보다 10%내외 감소 전망
 - 여유법 발표로 중국인 단체관광의 필수이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형 항공사 여행상품을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음

<표 II-11> 여유법 주요 내용

문제점	여유법 규정
마이너스 ·덤핑관광	- 여행사는 원가 이하의 비용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음 - 가이드가 관광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수행위를 금지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정 및 숙박호텔의 변경이 불가함
강압적 쇼핑 유도 및 옵션관광	- 여행사는 쇼핑장소를 강압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필요시 동의를 받도록 함 - 여행사의 쇼핑점 수수료 수수를 허용하지 않음 - 패키지 구성 이외의 별도의 옵션비용 항목을 개설할 수 없음
질 낮은 관광상품 및 서비스	- 여행사는 합법적인 관광상품 공급업체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 계약서에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서비스 기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그림 II-16] 중국인 방한관광 증가 추이(2005-2013.8)

<표 II-12> 춘절기간 중 중국관광객 방한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국객(명)	29,864	30,592	40,331	33,118	50,713	71,216
증가율(%)	0.54	2.44	31.84	-17.88	38.00	40.43

- 중국 여유법 시행으로 관광 마케팅 대응전략 마련 및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및 지원책 시행
 - 중국 여유법인 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를 통한 모객금지, 쇼핑 등 별도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 금지, 구체적인 쇼핑 장소 지정 금지 등인 조치로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상품가격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시장이 50~100%가량 상승하였음
-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추구 필요
 - 개별관광객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비자 발급요건 완화, 한류마케팅 강화와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내 관광시장

가. 국민 국내관광

■ 2012년 내국인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전년 대비 5.4% 증가

- 국내여행 참가자수는 2005년 3,688만 명에서 2008년 3,73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서 2011년 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2년 3,691만 명으로 2005년 대비 약 0.08% 증가하였음
-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주5일 근무제 시행('04.7)으로 2005년 3.88억일에서 2008년 4.08억일로 꾸준히 증가함을 보였으나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지속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국내여행 총비용은 2005년 145천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 국내여행 소비 총량은 239천억 원으로 2005년 대비 약 1.6배 증가하였음

<표 II-13> 국민 국내여행 총량(2005~2012)

년도	국내여행 참가수		국내여행 이동총량		국내여행 총비용	
	만인	성장률	억일	성장률	조원	성장률
2005	3,688	-	3.88	-	14.5	-
2006	3,766	2.1	4.16	7.2	16.6	14.5
2007	3,644	-3.2	4.77	14.7	15.7	-5.4
2008	3,739	2.6	4.08	-14.5	15.7	0.0
2009	3,120	-16.6	3.75	-8.1	16.4	4.5
2010	3,091	-0.9	3.40	-9.3	16.9	3.0
2011	3,501	13.3	2.87	-15.6	20.2	19.5
2012	3,691	5.4	3.65	27.2	23.9	18.3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 당일여행 3.6%, 숙박여행 15.4% 증가

- 숙박여행 경험율은 2005년 79.9%에서 2006년 80.5% 증가를 보였으나 2007년(78.1%) 이후 2012년(69.8%)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당일여행 경험율은 2005년 76.7%에서 2006년 80.9% 증가를 보였으나 2007년(76.2%) 이후 2012년(66.1%)까지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민 여행 총 경험율은 2005년 94.3%에서 2006년 95.3% 증가를 보였으나 2007년(91.1%) 이후 2012년(85.2%)까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여행 총 참여회수는 2005년(6.59회)부터 2007년(7.57회)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2008년 6.07회, 2010년 3.96회 및 2012년 4.93회로 감소 추세로 나타남
- 당일여행 경우는 2005년 3.80회로 2007년 4.58회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으며, 숙박여행의 경우도 2005년 2.79회 2007년 3.00회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남
- 2010, 2011년 숙박여행 및 당일여행 회수 최저로 나타남

<표 II-14> 국민 국내여행 경험율(2005~2012)

(단위: %, 회/인)

년도	숙박여행		당일여행		여행 이동 총량*	
	경험율	회수	경험율	회수	경험율	회수
2005	79.9	2.79	76.7	3.80	94.3	6.59
2006	80.5	2.94	80.9	4.26	95.3	7.20
2007	78.1	3.00	76.2	4.58	91.1	7.57
2008	77.4	2.58	75.2	3.48	92.3	6.07
2009	63.6	2.72	54.8	2.57	75.1	5.29
2010	61.3	2.17	47.1	1.79	72.8	3.96
2011	64.6	1.67	61.1	1.98	81.6	3.65
2012	69.8	2.13	66.1	2.80	85.2	4.93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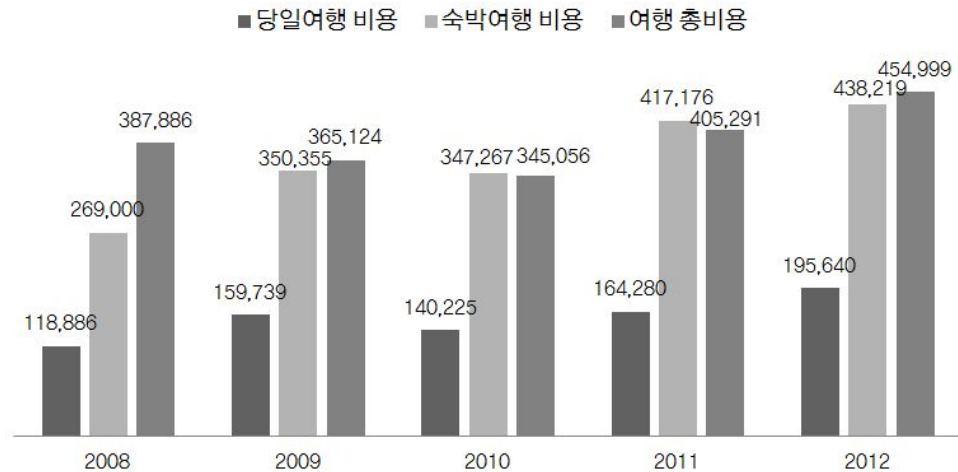
주) 이동총량*은 국내 숙박여행과 국내 당일여행을 합한 총일 수를 의미함

■ 국민 국내여행 1인당 여행비용은 전년대비 12.3% 증가

- 국민들이 국내여행에서 지출한 총 여행소비액은 2005년 370,954원 이래 점차 증가하였으며 2009, 2010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454,999원으로 나타남
- 당일여행 비용 경우는 2005년 104,429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 195,640원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여행 비용의 경우는 2005년 264,525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438,219원으로 나타남

- 2008년도에 당일, 숙박여행 비용이 최저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단위: 원/인)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II-18] 국민 국내여행 1인당 여행비용

■ 국민 국내여행 주요 행태 변화

- 국내관광 주요 행태를 살펴보면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여행 목적(숙박)은 가족/친지/친구방문 및 순수관광(여가 및 휴가)으로 2012년 기준 각 48.8%, 45.0%로 나타남
- 숙박 관광지 활동은 2008년 친지/친구방문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연/ 풍경감상, 휴양/휴식 및 음식관광(식도락)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기준으로 29.6%, 19.3% 및 15.2%로 나타남
- 숙박 이용 시설로는 2008년 가족/친지집 55.3 %로 제외하고 펜션/민박,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기준으로 펜션 23.2%, 콘도미니엄 20.0%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의 여행정보원은 가족/친지, 친구/ 동료를 통한 구전 방법이 인터넷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가족/친지 42.7%, 친구/동료 18.7%로 나타났음
- 숙박 방문 관광지로는 주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부터 숙박 방문 관광지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강원외의 경우 방문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국민 국내여행 시기로는 대부분 주말, 주중, 명절 및 휴가/방학 순으로 나타나며, 2008년에 비해 주중여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명절여행의 경우는 감소하였음
- 국내여행의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가 차량의 이용율이 높았으며, 1인 평균 국내 여행일수는 2008년에 비해 약 1.64일 감소한 8.43일로 나타났음

<표 II-15> 국민 국내여행의 주요 행태변화(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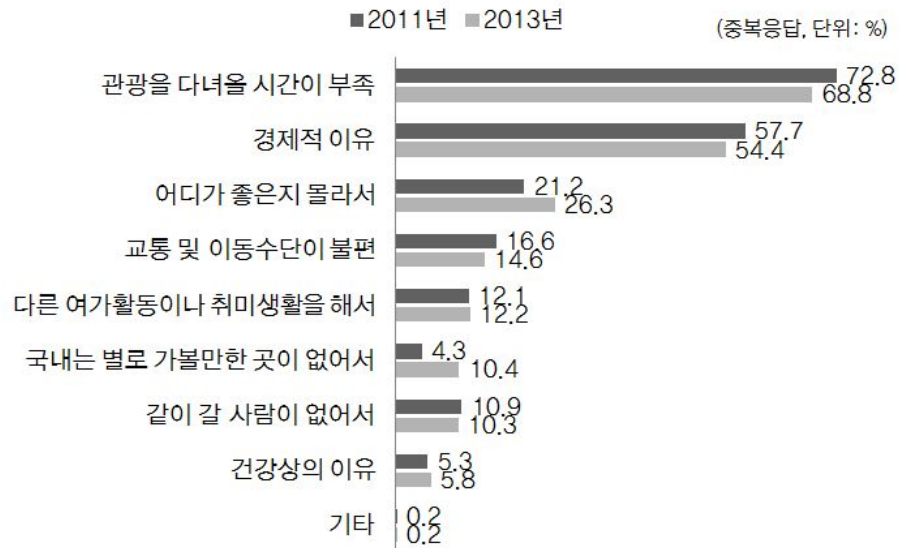
(단위: %, 일,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숙박여행 목적	친구/친지방문 50.3 여가/위락/휴가 41.5	여가/위락/휴가 87.2 친구/친지방문 10.2	여가/위락/휴가 91.8 친구/친지방문 6.4	가족/친지/친구방문 47.1 여가/위락/휴가 46.7	가족/친지/친구방문 48.8 여가/위락/휴가 45.0
숙박관광지 활동 (상위3위)	친지/친구방문 27.3 휴식/휴양 20.5 자연/풍경감상 19.6	휴식/휴양 37.2 자연/풍경감상 28.2 식도락 8.1	휴식/휴양 36.7 자연/풍경감상 30.8 식도락 9.6	자연/풍경감상 30.1 휴식/휴양 19.0 음식관광 15.6	자연/풍경감상 29.6 휴식/휴양 19.3 음식관광 15.2
숙박이용 시설	가족친지집 55.3 펜션 9.8	펜션/민박 28.4 콘도미니엄 21.8	펜션/민박 27.8 콘도미니엄 19.7	펜션 26.0 콘도미니엄 21.4	펜션 23.2 콘도미니엄 20.0
여행정보원 (숙박)	친지친구 60.8 인터넷 26.4	-	가족/친지 35.5 과거방문경험 24.1	가족/친지 43.1 친구/동료 17.8	가족/친지 42.7 친구/동료 18.7
숙박관광 방문지 (상위3위)	강원 15.7 경기 13.3 경남 10.0	강원 22.7 경북 11.1 경남 9.9	강원 12.1 경북 11.3 충남 10.5	강원 13.7 경기 10.5 경북 10.4	강원 12.2 경기 11.2 경남 10.2
여행시기 (숙박, 중복응답)	주말 41.8 주중 20.9 명절 20.7 휴가/방학 12.7	-	-	주말 63.0 주중 56.6 명절 13.0 휴가/방학 4.7	주말 66.6 주중 51.5 명절 13.4 휴가/방학 4.3
교통수단 (숙박)	자가차량 70.2	자가차량 73.1	자가차량 67.8	자가차량 66.1	자가차량 72.2
국내여행일 수 (1인 평균)	10.07	9.04	7.99	6.69	8.43
여행 동반자수 (평균)	당일 6.5 숙박 5.9	당일 6.0 숙박 6.6	당일 7.3 숙박 6.3	당일 4.5 숙박 5.1	당일 4.7 숙박 4.8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 국민들의 국내관광 참여 제약 및 불만족 요인 지속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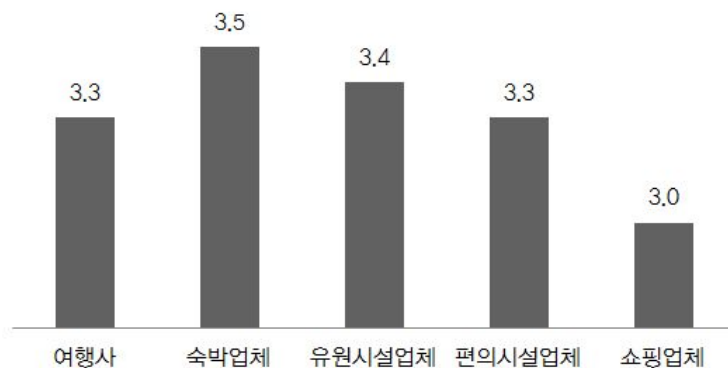
- 국민 국내관광의 주된 제약요인은 '시간부족' 및 '비용부담'
 - 시간부족 사유로는 업무(52.2%), 가족간 불일치(42.9%), 휴가일 부족(14.0%)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부담 사유로는 생활비 부담(59.4%), 낮은 소득(32.9%), 저축(16.0%)으로 나타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내관광실태 및 국민의식 심층조사(n=1,000)

[그림 II-20] 국내 관광 제약 요인

- 국민들이 국내관광시 이용한 각종 관광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점) 수준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쇼핑업체, 여행사, 편의시설업체 등에 대한 만족도 우선 개선 필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내관광실태 및 국민의식 심층조사(5점 리커드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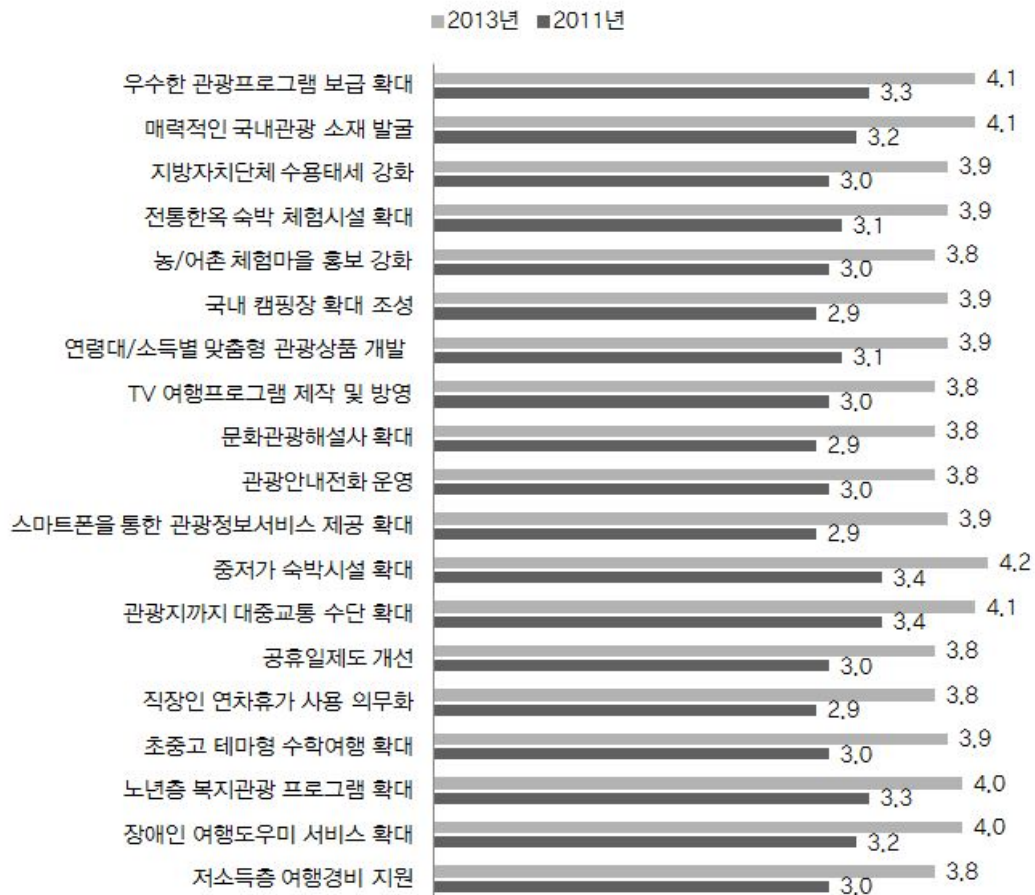
[그림 II-22] 국내관광시 관광업체에 대한 만족도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정책요구 다양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우수한 관광프로그램 보급, 대중교통·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매력적인 관광소재 발굴 등 우선 추진 필요

<표 II-16>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순위

우선 순위	주요정책	우선 순위	주요정책
1	우수한 관광프로그램 보급 확대	6	노년층 복지관광 프로그램 확대
2	관광지까지 대중교통 수단 확대	7	장애인 여행도우미 서비스 확대
3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8	전통한옥 숙박체험장 확대
4	매력적인 국내관광 소재 발굴	9	국내 캠핑장 확대 조성
5	자연휴양림 확대 조성	10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확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내관광실태 및 국민의식 심층조사(n=1,000)

[그림 II-24] 국내 관광 제약 요인

나. 국민 해외관광

■ 국민 해외여행은 지속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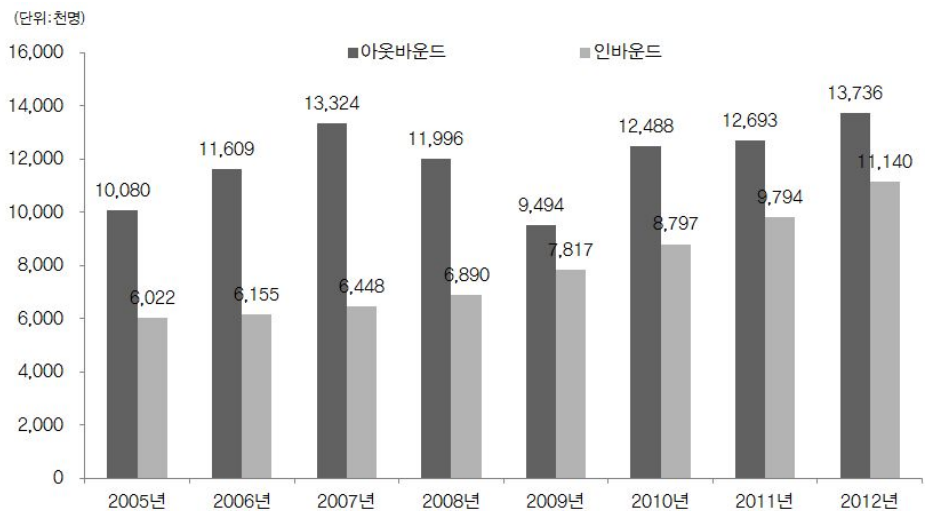
- 국민 해외관광객은 2008년 1,199만 명에서 2009년 949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2012년에는 1,373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8.2% 증가한 수치임

<표 II-17> 국민 해외 관광객 수 (2008~2012)

(단위: 천명)

년도	국민 해외 관광객수	증감율(%)
2008	11,996	-10.0
2009	9,494	-20.9
2010	12,488	31.5
2011	12,693	1.6
2012	13,736	8.2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각 년도

[그림 3-9] 인-아웃바운드 관광객수(2005~2012)

■ 중국, 일본은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관광목적지

- 주요국으로의 한국인 출국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출국이 2012년 현재 40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 미국, 태국, 홍콩, 필리핀 등의 순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태국, 미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의 방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중국, 일본 등으로의 방문은 조금 둔화되고 있음
- 2011년에는 일본 방문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중국, 싱가포르 방문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표 II-18> 주요국으로의 한국인 출국통계(2008~2012)

(단위: 명, %)

구분	연도별 출국인수					연도별 증감율			
	2008	2009	2010	2011	2012	09/08	10/09	11/10	12/11
중국	3,960,392	3,197,500	4,076,400	4,185,400	4,069,900	-19.3	27.5	2.7	-2.8
일본	2,382,548	1,586,772	2,439,816	1,658,073	2,043,977	-33.4	53.8	-32.0	23.3
태국	888,344	618,227	805,445	1,006,283	1,169,131	-30.4	30.3	24.9	16.2
미국	759,394	743,846	1,107,518	1,145,216	1,251,432	-2.0	48.9	3.4	9.3
홍콩	904,320	618,694	891,024	1,020,996	1,078,458	-31.6	44.0	14.6	5.6
필리핀	611,629	497,936	740,622	925,204	1,031,155	-18.6	48.7	24.9	11.5
싱가포르	423,011	271,982	360,615	414,879	345,223	-35.7	32.6	15.0	-16.8
베트남	449,237	362,115	495,902	536,408	700,917	-19.4	36.9	8.2	30.7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3.8), 주요국 한국인 출국통계

■ 국민 해외여행 주요 행태 변화

- 연도별 해외여행 목적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여가/위락/휴가’목적이 여행을 하는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사업 및 전문활동/업무상 목적’이 여행을 하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해외여행지에서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자연 및 풍경 감상, 단순 휴식/휴양, 음식관광, 역사유적지 방문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여행경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개별로는 251만원, 단체 20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대비 개별, 단체 여행경비 지출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해외 여행 선택 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원을 살펴보면 ‘여행사’의 추천을 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족/친지’추천, ‘인터넷’, ‘친구/동료’ 추천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9> 국민 해외여행 주요 행태변화(2008~2012)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여행 목적	여가/휴가 46.8 사업/업무 30.4	여가/위락/휴가 59.7 사업/업무 22.6	여가/위락/휴가 71.9 사업/업무 12.4	여가/위락/휴가 56.6 사업/업무 24.7	여가/위락/휴가 76.4 사업/업무 9.8
여행 주요 활동	관광지방문 72.7 쇼핑 69.5 식도락관광 22.0	휴식/휴양 25.6 자연/풍경감상 20.4 역사유적지방문 13.7	자연/풍경감상 28.9 단순휴식/휴양 25.6 역사유적지방문 16.4	자연/풍경감상 21.7 음식관광 11.0 역사유적지방문 10.8	자연/풍경감상 22.2 역사유적지방문 14.0 휴식/휴양 12.7
평균체류일	8.7일	—	10.26일	11.36일	—
여행경비 지출액	개별 205.7만원 단체 179.4만원	개별 175.3만원 단체 140.0만원	개별 181.5만원 단체 145.4만원	개별 254.6만원 단체 229.8만원	개별 251.2만원 단체 202.3만원
방문국 정보 취득 경로	인터넷 39.4 친구/친지 27.5 여행사 17.7	—	여행사 41.7 가족/친지 24.1 인터넷 9.9	여행사 43.9 가족/친지 21.8 인터넷 13.6	여행사 58.2 친구/동료 39.7 가족/친지 35.7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실태조사, 각년도

다. 외래관광객 국내관광

■ 2012년 방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돌입

-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1% 증가하여, 2012년 외래 관광객 1천백 14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바운드 집계 사상 최초로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함
 - 1970년 20만 명에 채 미치지 못했던 외래 관광객 입국자 수는 1978년 100만 명 돌파에 이어, 88올림픽을 계기로 200만 명을 넘어선 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98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며 20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했음
- 방한 외래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은 2003~2007년 동안 7.9%로 나타난 것에 비해, 2008~2011년 동안에는 12.4%로 큰 폭으로 증가함
 -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G20정상회의 등 메가 이벤트 개최에 따른 국격 제고 및 한류 문화의 부상과 비자 개선 등 동북

아시아 지역 내 관광시장 규모가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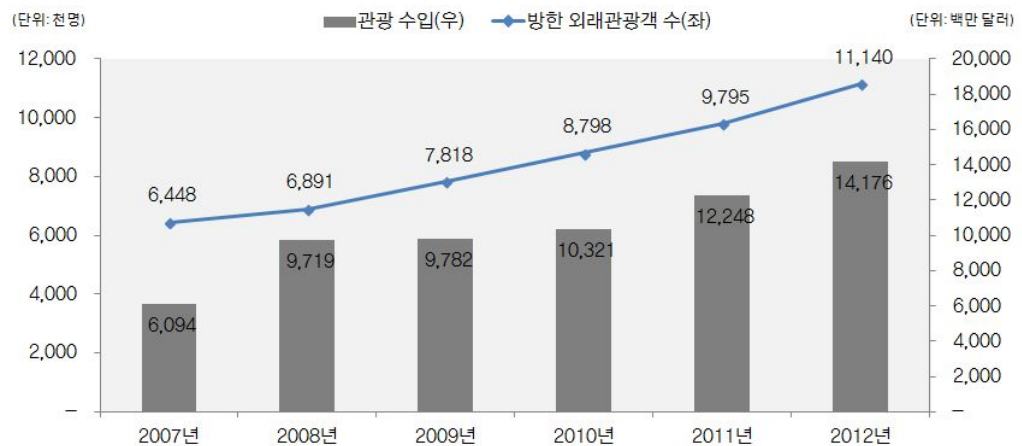
-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토대로 한국 정부는 2017년 각각 그 목표를 1,600만 명, 240억 달러까지 설정하고 있어 한국 내 관광산업의 발전 및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

<표 II-20>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2008~2012)

(단위: 명, %)

년도	방한 외래관광객 수	증감율(%)
2008	6,890,841	6.9
2009	7,817,533	13.4
2010	8,797,658	12.5
2011	9,794,796	11.3
2012	11,140,028	13.7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그림 II-28]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2007-2012)

- 주요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를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주 방문객이 79.78%로 전체 방한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주, 구주, 대양주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일본이 31.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 25.47%, 미국 6.26%, 대만 4.92% 등으로 나타남
- 주요 국적별로 전년대비 성장률을 살펴보면, 아시아주에서는

16.0%, 미주 5.9%, 구주 5.33%, 대양주 6.8%이며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지속 성장율을 보이고 있음

- 국가별로는 홍콩 28.2%, 대만 28.0%, 중국 27.8%의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표 II-21> 국가별 외래 관광객수(2008~2012)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방문객수	구성비 (%)	전년대비 성장률 (%)
전 체	6,890,841	7,817,533	8,797,658	9,794,796	11,140,028	100.00	13.73
아시아주	5,018,219	6,005,049	6,749,222	7,662,129	8,887,132	79.78	15.99
일 본	2,378,102	3,053,311	3,023,009	3,289,051	3,518,792	31.59	6.99
중 국	1,167,891	1,342,317	1,875,157	2,220,196	2,836,892	25.47	27.78
대 만	320,244	380,628	406,352	428,208	548,233	4.92	28.03
필리핀	276,710	271,962	297,452	337,268	331,346	2.97	-1.76
홍 콩	160,325	215,769	228,582	280,849	360,027	3.23	28.19
태 국	160,687	190,972	260,718	309,143	387,441	3.48	25.33
말레이시아	83,754	80,105	113,675	156,281	178,082	1.60	13.95
싱가포르	95,960	96,622	112,855	124,565	154,073	1.38	23.69
인도네시아	81,001	80,988	95,239	124,474	149,247	1.34	19.90
미 주	744,615	751,697	813,860	827,383	876,149	7.86	5.89
미 국	610,083	611,327	652,889	661,503	697,866	6.26	5.50
캐나다	104,022	109,249	121,214	122,223	128,431	1.15	5.08
구 주	592,303	597,762	645,753	681,025	717,315	6.44	5.33
러시아(연방)	136,342	137,054	150,730	154,835	166,721	1.50	7.68
영 국	87,014	91,165	97,510	104,644	110,172	0.99	5.28
프랑스	59,789	61,426	66,192	69,459	71,140	0.64	2.42
이탈리아	21,156	22,894	25,686	26,442	28,941	0.26	9.45
대양주	127,569	130,446	146,089	155,654	166,304	1.49	6.84
오스트레일리아	96,138	99,153	112,409	122,494	128,812	1.16	5.16
뉴질랜드	24,435	23,953	26,973	26,608	29,546	0.27	11.04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실태조사, 각년도

■ 외래관광객 방한 목적

-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문목적은 여가, 위락, 휴가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 및 전문활동이 24.5%, 쇼핑이 11.8%, 친구 및 친지 방문이 11.1% 순으로 조사됨

<표 II-22> 외래관광객 방한 목적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여가/위락/휴가	40.4	47.6	51.3	51.3	43.9
사업/전문활동	42.0	36.3	32.2	31.1	24.5
쇼핑	-	-	-	9.2	11.8
친구/친지방문	11.5	11.5	11.4	10.6	11.1
교육	-	-	-	4.6	6.5
뷰티/건강/치료	0.2	0.2	0.2	0.3	1.1
종교/순례	0.6	0.9	0.6	0.9	1.1
기타	5.3	3.5	4.3	0.5	0.1

자료 :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주 : '쇼핑', '교육'은 2011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임

■ 외래관광객의 특정지역 집중 현상 지속

- 방한 외래관광객의 방문 권역은 서울권이 82.5%로, 관광객의 서울 집중이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남
-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산은 지역관광 활성화의 현안과제로 대두

<표 II-23> 외래관광객 방문 권역

(중복응답,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서울권	77.4	80.3	79.7	82.5
경기권	37.2	37.6	23.8	21.3
인천권			9.0	7.7
경상권	20.9	20.9	19.3	16.1
제주권	12.4	13.1	10.2	12.0
강원권	11.2	11.9	11.1	9.7
전라권	4.1	5.8	3.9	4.1
충청권	6.3	7.2	5.1	4.1
기타	1.7	1.2	0.7	0.3

자료 :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주 : 2010년 조사까지는 경기권에 인천을 포함하여 조사, 2011년 조사부터 인천권과 경기권 분리, 기타 항목은 권역 구분이 불가능한 응답을 의미(예: 산, 박물관 등)

3. 관광산업의 현황 및 과제

가. 관광산업의 현황

■ 관광사업체 수 16,144개, 2009년 이후 지속적 증가

- 2011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된 전국의 관광사업체 수는 16,144개이며 2010년 대비 13.0%(1,863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이 10,725개(66.4%),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관광 편의시설업 3,41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유원시설업 21.5%, 여행업 15.5%은 2010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204,579명, 2009년 이후 지속적 증가

- 2011년 기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4,579명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이 62,783명으로 가장 많고 여행업 59,287명, 관광편의시설업 39,715명, 유원시설업 13,4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사업체 수가 1개 줄어든 카지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2010년 대비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행업(18.7%), 유원시설업(16.9%)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연간 총 매출액 전년 대비 12.6% 증가, 특히 여행업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

- 2011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20조 1,970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의 연간 총 매출액이 6조 1,409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행업 4조 4,021억 원, 관광편의시설업 2조 5,462억 원, 카지노업 2조 3,11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모든 업종의 연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행업의 매출액이 37.6%의 증가폭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존속기간 6.5년

- 관광사업체 평균 존속기간은 2009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1년 기준 6.5년으로 매우 짧은 편임

■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 18%

- 2011년 관광사업체 종사자는 상용근로자 76%(154,662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 18%(35,276명), 자영업자 3%(6,84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근로자 노동생산성 해외 주요국 절반 수준

-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연간 2만 3천 달러로,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3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

<표 II-24> 주요국의 관광산업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단위: 1,000\$/명)

구분	1988	1990	1995	2000	2005	2010
한국	10.8	11.7	15.1	18.0	20.8	23.0
일본	58.6	62.2	62.4	65.3	70.6	74.0
영국	38.9	38.4	44.8	50.1	50.7	45.3
프랑스	40.6	42.5	44.9	47.7	50.3	50.6
독일	39.2	38.3	42.8	46.5	46.1	47.3
미국	55.7	56.9	61.3	68.3	75.8	79.9
캐나다	34.1	33.8	36.0	39.2	41.9	38.6

자료 :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Research"; 강순희 외(2010).「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제고방안(II)」, 한국노동연구원

<표 II-25> 관광산업 연도별 사업체 현황(2005~2011)

(단위: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여행업	일반여행업	825	951	1,251	1,624	
	국외여행업	3,081	2,807	2,974	3,495	
	국내여행업	1,461	1,362	1,439	1,714	
	국내·외 여행업	3,188	3,449	3,620	3,892	
	소계	8,555	8,569	9,284	10,725	
관광 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582	631	660	656
		수상관광호텔업	1	54	62	—
		한국전통호텔업	3			4
		가족호텔업	30			58
		호스텔업	—			9
	휴양 콘도 미니업업	145	159	174	193	
	소계	761	844	896	920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26	60	67	48	
	종합휴양업	17			23	
	자동차 야영장업	1	3	4	11	
	관광 유람선업	15	28	41	44	
	관광 공연장업	1	3	6	1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145	139	174	166	
	소계	205	233	292	302	
국제회의업	국제 회의 시설업	206	308	363	12	
	국제 회의 기획업	6			386	
	소계	212			398	
카지노업		17	17	17	16	
유원시설업	종합 유원 시설업	31	38	45	42	
	일반 유원 시설업	110	147	161	178	
	기타 유원 시설업	47	92	97	148	
	소계	188	277	303	368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 유흥 음식점업	164	242	272	68	
	관광 극장 유흥업	—			184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291	297	348	360	
	관광식당업	1,225	1784	1,899	2,030	
	시내 순환관광업	9	21	27	24	
	관광사진업	21	7	17	15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	—	7	16	
	관광 토속주 판매업	70	—	—	—	
	관광펜션업	—	134	225	270	
	관광캐도업	—	5	11	11	
	한옥체험업	—	17	320	437	
	소계	1,780	2,507	3,126	3,415	
합계		11,718	12,755	14,281	16,144	

자료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II-26> 관광사업 부문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분석표(2011기준)

(단위: 개, 명, 백 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여행업	일반여행업	1,624	19,047	2,384,132
	국외여행업	3,495	10,864	560,162
	국내여행업	1,714	11,815	509,214
	국내·외 여행업	3,892	17,531	948,626
	소계	10,725	59,287	4,402,134
관광 숙박업	관광호텔업	656	43,292	4,689,794
	기타호텔업	-	1,862	242,432
	휴양 콘도 미니업업	193	14,553	1,208,718
	소계	920	43,988	6,140,944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문 및 종합휴양업	71	5,909	523,389
	자동차 야영장업	11	121	4,482
	관광 유람선업	44	575	96,590
	관광 공연장업	10	118	16,910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166	3,018	1,084,190
	소계	302	9,741	1,725,561
국제회의업		398	12,638	21,733,845
카지노업		16	6,923	2,311,664
유원시설업	종합 유원 시설업	42	7,414	747,856
	일반 유원 시설업	178	5,095	252,970
	기타 유원 시설업	148	983	42,687
	소계	368	13,492	1,043,514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 유흥 음식점업	68	1,392	114,786
	관광 극장 유흥업	184	5,727	236,818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360	2,040	70,219
	관광식당업	2,030	26,509	2,029,064
	시내 순환관광업	24	694	19,408
	관광사진업	15	75	878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16	80	10,892
	관광펜션업	270	1,035	27,597
	관광캐도업	11	912	20,223
	한옥체험업	437	1,252	16,320
	소계	3,415	39,715	2,546,204
합계		16,144	204,579	20,197,052

자료 :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II-27>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및 연간 총 매출액 추이

(단위: 개, 명, 백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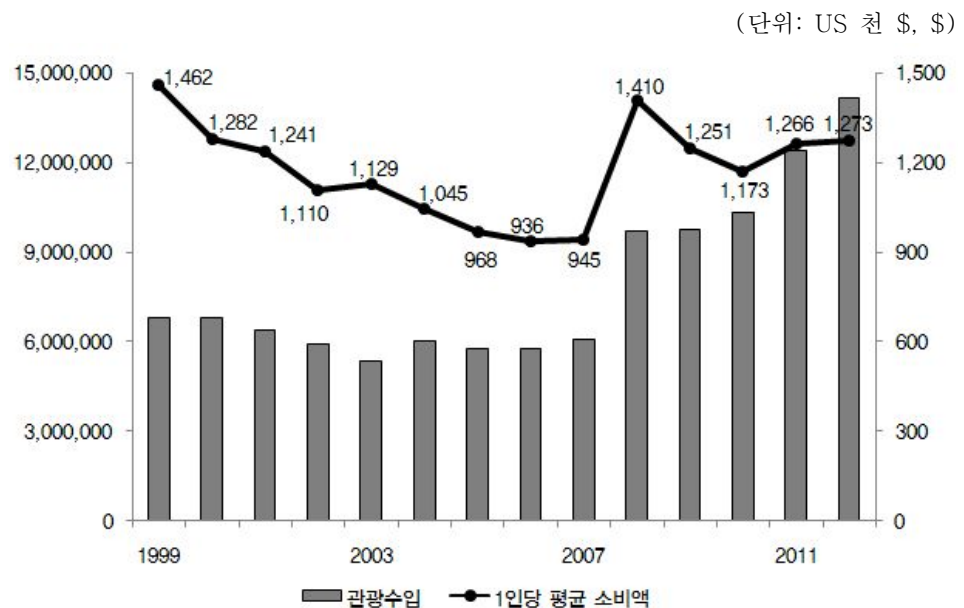
구분	종사자 수				연간 총 매출액			
	2008	2009	2010	2011	2008	2009	2010	2011
여행업	54,661	46,989	49,928	59,287	2,896,571	2,750,419	3,199,417	4,402,134
관광숙박업	53,385	56,530	60,402	62,783	4,440,447	5,092,650	5,541,966	6,140,944
관광객이용시설업	7,907	8,575	9,528	9,741	1,153,131	1,317,715	1,526,685	1,725,561
국제회의업	7,710	8,737	11,018	12,638	1,264,133	1,321,120	1,986,080	2,027,030
카지노업	5,819	6,212	7,248	6,923	1,982,595	2,073,426	2,262,584	2,311,664
유원시설업	10,856	10,946	11,545	13,492	707,224	851,486	950,505	1,043,514
관광편의시설업	26,825	30,951	36,725	39,715	1,538,874	1,789,690	2,399,661	2,546,205
합계	167,175	168,940	186,395	204,579	14,482,975	15,196,506	17,866,898	20,197,052

자료 : 2010,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나. 관광수지 동향

■ 관광수입

- 우리나라 관광수입은 2007년 이후 6년 연속 성장하였으며, 쇼핑활동이 왕성한 일본 및 중국 방한객의 증가, 방한쇼핑 매력 인식 확대 등으로 2012년에는 전년대비 14.4% 증가한 142억달러를 기록함
- 방한 외래객 연간 1인당 지출은 2012년 기준 1,273 달러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1999년 이후 감소치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13.07), 「2012 한국 관광통계 interim」

주: 2012년은 잠정치임

[그림 II-30] 관광수입 및 1인당 평균소비액 추이

■ 관광 지출

- 우리나라 관광 지출은 전년대비 1% 증가한 157억 달러로,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 원화 약세 등으로 해외여행객들이 알뜰여행을 한 데 따라 해외여행객수가 급증한데 비해 증가폭이 적게 나타남



자료: 한국관광공사(2013.07), 「2012 한국 관광통계 interim」
 주: 2012년 관광 지출은 잠정치

[그림 II-32] 관광지출 및 1인당 평균 소비액 추이

- 2012년 해외여행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146 달러로 유사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과 대비해서는 다소 감소함
- 방한 외래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과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을 통한 관광지출을 종합한 국제관광수지는 적자추세이나, 외래관광객 증가 및 수입증대에 따라 적자폭은 점차 감소되고 있음

<표 II-28> 국제 관광수지 추이 및 증가율

(단위: 천 \$, %)

연도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1	6,373,200	-6.4	6,547,000	6.0	-173,800
2002	5,918,800	-7.1	9,037,900	38.0	-3,119,100
2003	5,343,400	-9.7	8,248,100	-8.7	-2,904,700
2004	6,053,100	13.3	9,856,400	19.5	-3,803,300
2005	5,793,000	-4.3	12,025,000	22.0	-6,232,000
2006	5,759,800	-0.6	14,337,900	19.2	-8,576,100
2007	6,093,500	5.8	16,950,000	18.2	-10,856,500
2008	9,719,100	59.5	14,580,700	-14.0	-4,861,600
2009	9,782,400	0.7	11,040,400	-24.3	-1,258,000
2010	10,321,400	5.5	14,291,500	29.4	-3,970,100
2011	12,396,900	20.1	15,544,100	8.8	-3,147,200
2012	14,176,200	14.4	15,736,900	1.2	-1,560,700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주: 2012년은 잠정치임

1. 관광 경쟁력 평가의 의의

- 국가 관광 경쟁력은 국제 관광시장에서 각국의 위치와 강점, 약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WEF(World Economic Forum), FutureBrand 등은 매해 국가별 브랜드 가치, 관광 경쟁력 지수 및 순위 등을 평가하여 제시하고 있음
- 또한 국내에서는 국가브랜드 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있음
- 이에 각 기관의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 위치와 해외 주요국 및 주변국과의 경쟁우위를 분석하고자 함

2. 한국의 관광 경쟁력 평가 분석

■ 국가 브랜드 순위

- 국기브랜드 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SERI-PCNB NBDO (Nation Brand Octagon)을 공동개발하여 매년 국가 브랜드 순위를 평가함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체 브랜드는 13위, 이미지 브랜드는 17위로, 전년대비 2단계씩 상승하였음
 - 실체 및 이미지 브랜드 1위는 미국, 2위는 독일이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실체 브랜드 5위, 이미지 브랜드 4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평가됨
- 한편, IMD와 WEF가 제시한 국가 브랜드 순위에서는 각각 22위, 19위를 차지하였으며, WEF 브랜드 순위에서는 전년대비 5단계 상승함
 - IMD의 순위에서는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4위, 대만이 7위를 차지하였으며, WEF의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 홍콩이 9위, 일

본이 10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보다 높게 평가됨

- 우리나라보다 브랜드 순위가 높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국가들은 동시에 관광강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가 국가 관광경쟁력에도 일정정도 기여함을 시사함

<표 II-29>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순위

순위	SERI_PCNB NBDO				IMD		WEF	
	실체/국명	'11	이미지/국명	'11	국명	'11	국명	'11
1	미국	1	미국	3	홍콩	1	스위스	1
2	독일	2	독일	2	미국	1	싱가포르	2
3	프랑스	4	영국	5	스위스	5	핀란드	4
4	영국	3	일본	1	싱가포르	3	스웨덴	3
5	일본	5	스위스	9	스웨덴	4	네덜란드	7
6	스위스	6	스웨덴	7	캐나다	7	독일	6
7	호주	7	캐나다	4	대만	6	미국	5
8	스웨덴	8	프랑스	6	노르웨이	13	영국	10
9	네덜란드	10	호주	8	독일	10	홍콩	11
10	캐나다	9	네덜란드	11	카타르	8	일본	9
-	한국 13위	15	한국 17위	19	한국 22위	22	한국 19위	24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2012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주: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EF: World Economic Forum

■ 관광분야 국가 브랜드 순위

-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FutrueBrand에서는 매년 국가 브랜드 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제시함
 - 각 국가의 자연 및 주거환경, 레저환경, 비즈니스 환경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 2012년-2013년 기준 국가브랜드 순위에서는 이탈리아가 1위, 일본이 2위, 프랑스가 3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공개된 1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함
- 국가브랜드 최상위권 국가들은 관광분야에서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스위스 제외),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약 5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전체 일자리 중에서 관광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2.3%에서 많게는 5.7%까지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대한 관광산업의 기여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II-30> 2012-2013년 국가브랜드 10위권 국가의 주요 지표

2012-2013 국가브랜드 순위	인구 (천명)	GDP (억 달러)	국가면적 (km ²)	인간개발지수 (HDI VALUE)	FDI 2009 (달러)	관광 일자리 (개)	전체 일자리 중 관광산업 비중(%)
1위 이탈리아	60,483	20,683	301,340	0.874	393,996	853,000	3.7
2위 일본	127,799	50,072	377,915	0.901	200,143	1,455,000	2.3
3위 프랑스	63,294	27,386	643,801	0.884	1,037,942	1,149,000	4.5
4위 스위스	7,822	6,461	41,277	0.903	497,611	149,000	3.3
5위 미국	311,592	167,242	9,826,675	0.910	2,319,585	5,492,000	3.9
6위 캐나다	34,109	18,250	9,984,670	0.908	524,938	550,000	3.2
7위 독일	81,777	35,932	357,022	-	-	-	-
8위 태국	67,041	4,009	513,120	-	-	-	-
9위 모리셔스	1,280	118	2,040	-	-	-	-
10위 호주	22,618	14,879	7,741,220	0.929	391,101	648,000	5.7

자료: FutureBrand(2013) Country Brand Index

주: 인간개발지수, FDI, 관광 일자리는 2013년부터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2011년 자료 활용

- 한편, 관광 부문에 있어서는 적격성(Value for Money), 매력성, 리조트·숙박, 음식, 쇼핑, 해변, 야간활동 등에 대한 브랜드 순위를 측정함
- 우리나라는 쇼핑부문 13위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부문에는 순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함
- 각 부문의 1위는 적격성 태국, 매력성 일본, 리조트·숙박 모리셔스, 음식 이탈리아, 쇼핑 미국, 해변 호주, 야간활동 미국이 차지함
-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국이 적격성 1위, 쇼핑 11위, 해변 10위, 야간활동 9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이 매력성 1위, 음식 3위, 쇼핑 5위, 야간활동 10위를 차지함

- 또한 대만이 음식 9위, 중국이 쇼핑 6위, 싱가포르가 야간활동 15위를 차지함
- 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가들이 적격성, 매력성, 음식, 쇼핑 등 여러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우리나라의 부문별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표 II-31> 2012-2013년 관광 부문 국가브랜드 순위

순위	적격성 (Value for Money)	매력성 (Attractions)	리조트·숙박 (Resort and Lodging Options)	음식 (Food)	쇼핑 (Shopping)	해변 (Beach)	야간활동 (Nightlife)
1	태국	일본	모리셔스	이탈리아	미국	호주	미국
2	말레이시아	미국	스위스	프랑스	프랑스	바하마	브라질
3	독일	이탈리아	몰디브	일본	이탈리아	몰디브	프랑스
4	캐나다	프랑스	피지	싱가폴	영국	브라질	영국
5	미국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호주
6	일본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중국	피지	스페인
7	호주	영국	호주	스위스	독일	바베이도스	독일
8	뉴질랜드	뉴질랜드	미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그리스	이탈리아
9	피지	이집트	바하마	대만	호주	모리셔스	태국
10	스위스	호주	캐나다	태국	싱가폴	태국	일본
11	아랍에미리트	피지	독일	캐나다	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12	벨리즈	독일	스웨덴	스웨덴	캐나다	이탈리아	캐나다
13	모리셔스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모리셔스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14	코르타리카	이스라엘	프랑스	에스토니아	인도	스페인	영국
15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터키	싱가폴

자료: FutureBrand(2013), Country Brand Index

■ 관광경쟁력 평가지수

-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관광분야의 규제, 사업환경 인프라, 인력·문화·자연자원 등에 평가를 통해 국가 관광경쟁력 순위를 책정함
-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관광경쟁력 순위는 25위로, 제 3차 진흥계획을 수립했던 2008년 기준 31위에서 6단계 상승함
- 규제 관련 순위는 55위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특히 환경적 지속가능성 순위는 69위로 2008년 기준 55위에서 6단계 하락함
- 사업환경 인프라에서는 ICT인프라가 세계 1위로 평가되어 2008년 35위에서 18단계 상승한 17위로 평가되었으나, 가격 경쟁력은 9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한편, 인력·문화·자연 자원 부문 순위 역시 26위에서 20위로 상승하였는데, 세부 항목인 관광친화성이 114위에서 89위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 해외 주요국의 관광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영국이 5위, 프랑스가 7위, 호주가 11위를 차지하였음
- 아시아 국가의 경우, 홍콩이 15위, 싱가포르가 10위, 일본이 14위, 홍콩이 19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보다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며, 그 외 대만이 29위, 말레이시아가 34위, 태국이 43위, 중국이 45위를 차지함
- 싱가포르의 경우 정책 규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안전 및 보안, 관광전략 우위 부문에서 높이 평가 받았으며, 육상교통 인프라, 인력자원 부문에서도 각각 2위를 차지함
- 일본은 관광전략 우위, 육상교통 인프라, ICT 인프라 부문에서 7위를 차지한 반면,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격경쟁력 부분에서는 각각 98위와 130위 수준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홍콩은 사업환경 인프라 3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육상 교통 인프라 부문 1위, ICT 인프라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였고, 관광친화성 부문에서도 3위를 차지함

<표 II-32>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관광경쟁력 지표 순위

구분	한국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13	'08										
관광경쟁력 순위	25	31	5	7	11	10	14	15	33	34	43	45
규제 관련	38	41	17	9	23	6	59	19	29	55	76	71
정책 규제	50	34	8	25	14	1	20	3	5	9	77	86
환경적 지속가능성	69	55	7	11	56	23	98	118	94	61	99	109
안전 및 보안	39	71	22	33	13	5	95	3	17	66	87	67
건강 위생	19	37	48	6	40	56	92	50	43	73	84	82
관광전략우위	75	52	40	35	39	4	7	12	55	51	33	45
사업 환경 인프라	17	35	10	7	25	4	24	3	34	41	44	63
항공인프라	31	39	5	8	4	14	25	6	51	26	21	35
육상교통인프라	16	15	13	5	49	2	7	1	18	36	62	51
관광인프라	51	71	22	17	20	38	53	71	75	73	31	101
ICT인프라	1	8	10	15	18	9	7	2	16	57	90	74
가격경쟁력	96	102	138	140	137	66	130	32	21	5	25	37
인력·문화·자연 자원	20	26	3	11	4	25	10	29	44	17	23	13
인력자원	33	19	6	35	22	2	21	8	25	28	70	38
관광친화성	81	114	45	48	38	8	77	3	37	16	18	129
자연자원	89	91	15	30	2	92	21	84	91	18	23	5
문화자원	10	13	3	8	20	35	11	42	34	31	36	15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 Index

3. 시사점

■ 국가 관광 브랜드 강화 필요

-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순위는 13위(낮게는 22위), 관광경쟁력 순위는 25위로 관광 경쟁력 순위가 국가 브랜드 순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에 관광강국이라는 가치를 더하여 매력적인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제고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변국 대비 경쟁우위 확보 필요

-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국가 브랜드 순위, 관광경쟁력 순위, 부문별 관광경쟁력 순위에서 앞서고 있음
- 관광자원, 시설, 서비스 등 주변국의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 우위 확보가 필요함

■ 관광산업 전 부문 경쟁력 강화 필요

- 우리나라는 관광 부문별 브랜드 순위에 있어, 적격성, 매력성, 리조트·숙박, 음식, 해변, 야간 활동 등 쇼핑을 제외한 전분야에 순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함
- 따라서 관광산업 전 부문에 대한 집중적 정책 지원을 통해 국제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수용의 질적 개선 필요

- 우리나라 관광은 가격경쟁력 및 관광친화성 부문에 각각 96위와 81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향후 관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 서비스 및 콘텐츠의 질적 개선, 전국민의 관광 환대 인식 개선, 경영 혁신을 통한 가격 절충 등의 노력이 필요함

<표 II-33> 시사점

구분	현황	시사점
관광브랜드 강화	·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순위는 13위(낮게는 22위), 관광경쟁력 순위는 25위로 관광 경쟁력 순위가 국가 브랜드 순위에 비해 다소 낮음	· 매력적인 관광한국의 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 및 강화
주변국 대비 경쟁우위 확보	·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변국들에 비해 국가 브랜드 순위, 관광경쟁력 순위, 부문별 관광경쟁력 순위에서 뒤처짐	· 주변국의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 우위 확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 부문별 브랜드 순위에 있어 쇼핑을 제외한 전분야에 순위권 내 진입하지 못함	· 관광산업 전 부문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국제 관광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관광 수용의 질 개선	· 가격경쟁력 및 관광친화성 부문에 각각 96위와 81위 차지	· 관광 서비스 및 콘텐츠의 질적 개선, 전국민의 관광 환대 인식 개선 등 관광 수용의 질 개선

1. 분석 개요

가. 분석 내용

-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광시장 확대 부각으로 인해 아·태지역의 관광객 유치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의 관광정책을 분석하여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 한국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 선진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 필요
- 또한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주요 경쟁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분석으로 한국 관광정책의 개선에 방향성 및 시사점 활용

나. 분석 유형과 대상국가

- 조사 대상국은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6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⁷⁾
- 조사 대상 6개국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의 비전과 목표 및 방향, 주요 정책내용 및 전략등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함

<표 III-34> 사례조사 분석개요

구분	계획명	주요 목표
일본	신성장 전략	관광입국 및 지역 활성화 등의 전략으로 높은 경제 성장 실현
중국	관광산업 발전계획	관광산업을 지주 산업으로 육성 및 세계 관광대국 건설
영국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국가경제, 고용,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극대화
호주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2020	관광산업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로드맵 제공
독일	연방정부 관광정책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업지를 강화
프랑스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6) 자료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해외 관광정책 추진사례와 향후 정책방향

7) 주: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2」참조하여 6개국의 최근 관광정책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함

2. 일본 「 신성장 전략(~2020) 」

가. 계획 개요

■ 높은 경제성장 실현

-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7대 전략 분야와 우선 추진과제로 21개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함
 - 7대 전략 분야로는 ① 환경·에너지대국 ② 건강 대국 ③ 아시아경제 ④ 관광·지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 ⑥ 고용·인재 ⑦ 금융이 있음
- 중국인 방일관광의 비자취득요건 완화, 신청창구 확대 등 사증취득 용이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인 프로모션 실시, 의료 등 성장분야와 연대한 관광촉진, 지역별로 휴가를 분산하는 휴가취득 분산화, 연차유급휴가의 취득 촉진 등을 과제로 제시
- 2020년까지 경제성장을 이끌 新성장전략 분야 중 하나로 관광입국·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며, 관광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살리고 진흥하여 지역 활성화의 해결책이 된다고 설명함

구분	창출 목표
계획 년도	~ 2020년
목표 관광객 수	3,000 만 명
경제 파급 효과	10조 엔 (2,500 만 명 기준)
신규 고용	56 만 명

나. 주요 내용

■ 2010년 신성장 전략은 건강한 일본 부활 시나리오를 설정

- 신성장 전략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침체되는 경제, 확대되는 재정적자 그리고 신뢰감이 저하된 사회보장 등을 배경으로 '강한경제', '강한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일체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이 목표로 책정됨

■ 방일외국인 3천만 명 프로그램 제 1기 사업

- 방일외국인 3,000만 명의 달성으로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중국인 방일관광의 비자취득요건 완화, 신청 창구 확대 등 사증 취득 용이화, 여행촉진사업(Visit Japan campaign), 방일외국인여행자를 위한 수용태세 정비사업 등 추진

■ 관광을 통한 지역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 관광지역 만들기 플랫폼 지원사업, 광역관광촉진 기초조사 사업, 관광을 통한 국내외 교류인구의 확대와 일본의 독자적 문화재·전통예능 등의 문화유산 활용 등

■ 관광인재 육성

- 인재육성사업, 인재육성 가이드라인 사업, 대학의 관광경영 매니지먼트 교육지원, 유학환경, 정비, 홍보강화 등을 도모.

■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 휴가 분산화 도입 촉진 사업, 휴가 취득의 분산화 등 로컬 홀리데이(local holiday) 제도 (가칭) 검토, 연차유급휴가의 취득 촉진, 매력적인 관광지조성 등을 통한 국내 관광수요 증대 등 종합적인 관광정책 추진

다. 계획 개요

■ 세계 관광대국 건설을 목표

- 중국 관광산업 발전계획(2001~2020)은 관광산업을 지주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관광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초단계(2001년~2005년), 진흥단계(2006년~2010년), 강화단계(2011년~2015년), 완성단계(2016년~2020년)으로 분류함
- 2000년 이후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진입과 2008년 올림픽 개최에 따라 중국정부의 관광정책이 변화함
- 주요 관광정책은 외래관광객 입국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런 정책기조 하에 외래관광객 비자발급 및 국경 통과 간소화, 해외 주요시장에 국가여유국⁸⁾ 지국 등을 추진함

라. 주요 내용

■ 기초·진흥·강화·완성 단계로 구분하여 정책 추진, 현재는 강화단계(관광환경 개선, 관광상품 품질 강화)

- 기초단계(2001~2005)에서는 관광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 건설 차원에서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수립, 정부기구 등 관광 관리체계 전면적 개혁, 서부 대개발 등이 추진
- 진흥단계(2006~2010)에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진흥하기 위한 관광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규모를 세계 3위 수준으로 향상
- 강화단계(2011~2015)에서는 국력신장에 따른 관광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상품의 경쟁력, 차별성, 품질강화 추진, 완성단계(2016~2020)에서는 관광선진국으로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중심산업의 위치로 격상 계획

■ 제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서는 국내관광 전면적, 외국인 국내관광을 적극적,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순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조로 설정함

-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을 모두 중시하여 지원하고 관광인프라 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중점관광구와 여행 노선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관광산업의 특화 발전과 관광상품의 다양화, 생태관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문화관광을 심도 있게 개발하여 홍색(혁명)관광을 발전, 관광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자기규율개발과 신용건설을 강화하여 관광서비스 질제고 등이 중점 추진 예정

구분	창출 목표
목표년도	2015
2015년 내국인 관광객 수	33억 명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6,630 만 명
해외방문 중국인	8,375 만 명

8) 2011년 12월 국가여유국은 여행사관리조례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여행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특별규정을 추가 및 신설하였음

3. 영국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

가. 계획 개요

■ 경제, 고용,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

- 영국 NTO인 VB(VisitBritain)는 중장기 계획(A Strategic Framework for Tourism: 2010-2020)에서 ‘관광산업이 국가경제, 고용,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극대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20년까지 관광산업 연평균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음
- 외래관광객 추가 유치, 내국인의 국내여행촉진, 관광산업의 생산성 확대라는 정책목표 하에 세계관광시장 점유율 확대, 매력 있는 관광목적지개발,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노력 강화, 관광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 특히2012년 올림픽을 관광산업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한다 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VB(VisitBritain)는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DCMS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DCMS는 올림픽 계기 약 10억 파운드의 홍보와 마케팅을 가능케 할 신규기금을 공공과 민간의 매칭펀드 식으로 조성 중에 있음
-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①세계 관광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②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 확대, 관광객의 만족도 증대 4대 목표로 제시하고 각 목표에 해당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구분	창출 목표
계획 년도	2010~ 2020년
목표 외래 관광객 추가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백만 명 외래관광객 추가 유치 • 20억 달러의 추가 관광지출 • 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내국인 국내여행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일 국내여행 추가보내기 • 30억 파운드 추가소비 • 2만 6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나. 주요 내용

■ 글로벌 관광시장에서의 점유율 향상

- 국가차원의 마케팅 전략 수립, 2012 런던 올림픽, 문화대제전 등 빅이벤트 기회 극대화,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발전 계획 등을 수립

■ 매력있는 관광지 개발

- 공공, 민영, 비영리, 지방단체 등 관광관련 주체 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관광협정(Regional Tourism Framework Agreements)'체결, 관광지 관리 및 조직체계를 위한 기준 설립, 관광부문 품질평가 프로그램 검토 및 형성 등을 수립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

- 관광시장의 동향 및 사업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조사, 지식프로그램 개발, 해변리조트 등 낙후된 관광자원 재생 계획 수립, 농촌관광실행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관광실행계획 등을 수립

■ 관광객 만족도 증진

- 최신 관광정보 프로그램 및 e-tourism 플랫폼 구축, 관광대중교통 실행계획 수립, 관광제반시설 재점검, 'Welcome to England 프로그램' 실행,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년층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

■ 2012 런던 올림픽 대책

- 런던 올림픽 이후 영국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관광부문의 관광전략은 관광산업체 참여 유도, 영국의 국제 이미지 개선, 방문객 환대 전략, 관광종사원 환대서비스 개선, 숙박시설의 질 개선, 비즈니스 방문과이벤트 기회 극대화, 이윤의 효율적 분배, 지속가능성 강화 등이 있음

4. 호주 「중장기 관광발전계획(2020)」

가. 계획 개요

■ 관광산업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로드맵 제공

- 호주 정부는 'Tourism2020 Strategy(2011. 12)'를 시행하였으며, 국가의 장기적 관광전략(National Long-Term Tourism Strategy)에 2020년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반영한 것임
 - 호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Tourism 2020 Strategy'의 시행단계는 1단계(2011~2014): 관광산업 기반 조성, 2단계(2015~2017): 체험(experience) 및 통찰력(insights) 도출, 3단계(2018~2020): 관광산업 잠재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ourism 2020' 전략은 호주관광산업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산업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호주 정부는 이 계획을 정부소속의 관광산업 관련 하부 기관들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민간 주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식 전환 및 발전을 위한 관광정책의 기조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객의 장기 체류 및 적극적인 관광상품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이들의 소비지출 증가를 통해 경제적 이익 증가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구분	창출 목표
계획 년도	2011~ 2020년
1일이상 체류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	약 140억 달러(2009년 기준 70억 달러, 2배 증가)
관광세수	약14.5 억 불(2009년 9.3억 불) 순 수출 수입이 6.7억불 증가
GDP 기여 비율	2020년까지 3.0%증가 (2009년 기준 2.6%에서)

나. 주요 내용

- 관광객 증대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경쟁력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함 (국가의 온라인 활용 전략: NOST, National

Online Strategy for Tourism)

- 관광산업의 시장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방식 활성화 전략으로 온라인 유통과 호주 관광상품에 대한 글로벌 시야를 증대, 온라인 홍보 및 배포증가를 위해 관광산업에 디지털을 활용함

■ 지속적인 투자 및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증대로 관광산업 성장조치 필요함

- 정부 및 국가차원에서 투자 장벽 제거 및 관광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국가적 협업 추진, 투자원활화 서비스 구축, 자연관광개발을 지원하는 규제적 환경 구축, 숙박 공급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개발기획 및 허가 프로세스 간소화 및 관광산업 인력 공급 증대 등의 전략을 계획함

■ 노동 및 기술력 공급, 지역주민 참여(토속관광)증대

- 관광분야 인력의 기술이 고용자와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관광·호스피탈리티 등 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계획이 새롭게 수립함
- 또한 장기적 관광전략에 따라 토속관광개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토속 관광상품을 공급, 토속주민의 관광산업 참여 제고를 지원함

■ 산업회복력·생산성·질적부문 향상

- 국가적 장기 관광산업 전략에 따라 산업회복력 실무그룹을 구축하여 환경·정치·사회적인 외적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력 구축함
- T-QUAL Grants 프로그램을 통해 대·소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매칭하여 지원금 제공 및 고품질 관광상품·체험 서비스를 제공함
-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관광사업자의 고품질화 및 T-QUAL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관련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체험의 고품질 정보화에 주력하며, 특히 T-QUAL을 통한 정보표준 제고에 역량을 집중함

5. 독일 「연방정부 관광정책 (2013기준)」

가. 계획 개요

■ 독일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업지를 강화

- 독일 관광정책은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중산층정책의 일환으로 관광정책에 관여하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방정부 관광정책의 목표는 독일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업지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그 외에 관광의 경쟁력 제고, 폭넓은 관광 참여 가능성 개선, 관광의 국제적 협력 강화 및 연방 및 주정부간의 협력 개선 등의 다양한 목표가 있음
-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독일은 산업유산의 적극적 보존 및 활용, 우수한 산업관광자원을 꾸준히 확대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 수요를 창출하며 산업관광을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구분	산업관광 수요
숙박 관광객 수 (백 만명)	5.95
당일 관광객 수 (백 만명)	65.85
숙박 관광객 지출 (백만 유로)	1,462.8
당일 관광객 지출 (백만 유로)	1,843.8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3)

나. 주요 내용

■ 2011년 의료관광 ‘혁신적 건강관광’프로젝트 제시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독일의 혁신적 건강관광”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의료 및 건강센터,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 요양지 및 힐링 욕당을 포함한 건강의료지역 등 제시함

■ “농산어촌지역의 관광전망“ 프로젝트를 농림부와 함께 시행

- 자전거타기, 둘레길 도보, 수중스포츠 등과 함께 농산어촌문화 체험,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나 오래 된 시골집에서 보내기 등을 통하여 연령층 구분 없이 모두에게 휴양, 자연체험, 활동 및 건강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수변관광분야의 공급 시장을 더욱 전문화시키고 경제기술부는“수변관광 마케팅 이니셔티브”프로젝트를 발주함

- 수변관광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검사하는 시험인증제도, 수변에서의 자유시간과 휴가를 즐기는 계획 등의 정보를 다양한 언어의 포털사이트, 수변관광에 대한 경영과 시설의 운영 및 마케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경계 없는 관광산업’으로 공급 및 서비스의 발전과 마케팅 시도

- 경계 없는 관광 공급 표식의 일원화, 표준화된 관광의 질적 발전, 관광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강화, 경계 없는 관광 마케팅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함

■ 관광에서 지속성 유지 및 사회적 책임의 의미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관광을 위한 글로벌 윤리헌장이 규정되었음

- 윤리헌장의 내용으로 관광은 민족들과 공동체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 활용, 인류의 문화유산 및 그의 보존과 연계 및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의무 준수 및 누릴 권리의 향유, 관광의 자유와 관광 참여의 자유, 관광 산업 종사자 및 기업가의 권익 보호 등의 규정을 담고 있음

6. 프랑스 「중장기 관광발전계획(2010~2020)」

가. 계획 개요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

- 최근 프랑스 관광정책의 주요 추진전략은 시장점유율 확대, 1인당 소비지출 증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강화, 국민여행의 지속적 성장유도, 관광우선 정책추진 등임
- 프랑스는 관광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중장기 관광발전계획(A Strategy Destination France(2010-2020))을 수립함
 - 이 계획은 ① 잠재고객 개발, ② 전략시장 개발, ③ 프랑스의 리더십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① 고품질 관광공급 개발 ②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③ 유통망 강화 ④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한 프랑스의 새로운 매력 부각 평가체계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미래 잠재 수요계층의 설정과 이들에 최적화된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관광대국 프랑스의 리더십 회복'을 추진함
 - 프랑스는 BRICs 등 신흥경제국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 소비계층이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라 전망하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표적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

구분	산업관광 수요
숙박 관광객 수 (백 만명)	2.14
당일 관광객 수 (백 만명)	15.73
숙박 관광객 지출 (백만 유로)	55.09
당일 관광객 지출 (백만 유로)	440.6

자료: European Parliament(2013)

나. 주요 내용

■ 고품질 관광공급 개발

- 지역 간 다양성을 부가시킬 수 있는 참신한 상품개발, 낙후지역 개선을 통한 새로운 관광 지역 개발, 항공허브 전략, 국내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도시 간 접근성 강화,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새롭게 도입된 관광분야 펀드 TSI(Tourism Social Investment)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지방, 소규모 독립호텔 등에 투자유치 지원 하도록 함

■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관광자원 재개발 시 환경적 측면 우선고려, 숙박시설, 자연 보호구역, 해수욕 등에 '친환경 상표(등급제)'도입함

■ 유통망 강화

- 특정지역에 국한된 유통구조 확대, 온라인 공급망(e-tourism 플랫폼) 확대, 소규모 지역의 해안, 산악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수익률 관리(Yield Management)를 근간으로 성수기/비수기에 차별화 된 요금 및 유통정책 도입함

■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한 프랑스의 새로운 매력 부각

-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Web 2.0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활용, 전 세계 유명인사, 칸 영화제 등의 국제행사 등을 활용한 '모던 & 럭셔리'한 프랑스 국가관광브랜드 구축,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체계 정비 방안 마련

- 관광경제 경영 시스템(방문 비율, 경제 효과, 고용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구축, 정책 및 사업추진 성과 평가, R&D 기능강화 등을 도입함

<표 II-39> 경쟁 국가들의 주요 관광정책 종합

국가	주요 관련 정책	목표	주요 내용
일본	신성장전략 “관광·지역”	방일외국인 장래 3,000만 확대 10조 엔 창출 신규고용 56만 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외국인 3천만 명 프로그램 제 1기 사업 • 관광을 통한 지역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인재 육성 •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중국	관광산업 발전계획 (2001~2020)	관광산업을 지주 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관광대국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정책수립, 정부기구 등 관광 관리체 계 전면적 개혁, 서부 대개발 등이 추진 • 관광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의 규모를 세계 3위 수준으로 향상 • 관광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상품의 경쟁력, 차별성, 품질강화 추진 • 관광선진국으로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중심산 업의 위치로 격상 계획
영국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2010~2020)	관광산업이 국가경제, 고용,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관광시장에서의 점유율 향상 • 매력있는 관광지 개발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 • 관광객 만족도 증진
호주	Tourism 2020 Strategy	관광산업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증대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경쟁력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함 • 지속적인 투자 및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증대 로 관광산업 성장조치 필요함 • 노동 및 기술력 공급, 지역주민 참여(토속관 광) 증대 • 산업회복력·생산성·질적부문 향상
독일	연방정부 관광정책 (2013기준)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업지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의료관광 ‘혁신적 건강관광’ 프로 젝트 제시 • 농산어촌지역의 관광전망 프로젝트 시행 • 수변관광분야의 공급 시장 전문화 • 장벽없는 관광으로 공급 및 서비스의 발전과 마케팅 시도 • 관광에서 지속성 유지 및 사회적 책임의 의미 의 관광을 위한 글로벌 윤리헌장이 규정
프랑스	중장기 관광발전계획 (2010~2020)	관광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보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고품질 관광공급 개발, 유통망 강화 •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한 프랑스의 새로운 매 력 부각 • 평가체계 정비 방안 마련

주: 「OECD Tourism Trend and policies 2012」 참조하여 6개국의 최근 관광정책 및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정리함

**국가수입증대와 고용창출, 투자촉진을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및 질적발전을 위한 관광정책 수립**

III. 관광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 평가

1. 지난 정부의 관광정책 추진 현황
2. 지난 정부의 관광정책 성과 평가
3. 관광비전 및 향후 과제 전문가조사 결과

1. 관광정책 추진 현황

가. 주요 정책 회의 및 방안

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2008년~2009년, 3차에 걸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

- 지난 정부는 2008년 3월과 12월, 2009년 11월에 3차에 걸친 대책 회의를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함

■ 관광산업 지원, 관광 수용 태세, 국민 관광 활성화 정책 제시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콘텐츠 확보 방안, 국민 관광 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을 제시함
- 제 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민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 체계 구축, 감세 및 규제완화,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과제를 제시함
- 제 2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은 인바운드 관광 및 대응 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적 콘텐츠 개발, 관광 수용태세 개선, 인바운드 수요 관리, 관광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과제를 제시함
-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은 국내관광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장친화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확대 방안, 한국형 콘텐츠 강화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과제를 제시함

<표 III-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전략 및 추진과제

구분	전략	추진과제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2008.03)	민관 효율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풀뿌리 관광홍보협의체(CVB) 구성
		관광진흥발전기금 배분에 민간참여 확대
	감세 및 규제완화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사항 발굴 및 개선
		지속적인 조세지원 및 규제완화
	관광산업의 고수익 구조화	MICE산업, 의료관광 육성
		신명·열정·풍류 등 한국 정신문화 관광자원화 지원
		고부가가치 신규 분야(테마파크, 요트, 크루즈 등) 발굴 지원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2008.12)	한국적 특성의 명품 콘텐츠 개발	역사·문화 자원의 명품 콘텐츠 개발
		자연·생태 자원의 명품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IT 자원의 명품 콘텐츠 개발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지원
	친절·안전·쾌적한 관광한국 이미지 창출	입구에서 출국까지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KOREA 관광브랜드 재창출
	인바운드 수요관리	일본·중국 관광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관광서비스업계의 경쟁력 강화	관광업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을 강화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2009.11)	관광의 일상화	휴가제도 개선 (부문의 연가 및 휴가사용 활성화, 경제단체와 연계한 민관 합동 휴가활성화 캠페인)
		가족관광 교육시스템 (제량휴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유도, 배움이 있는 교육관광 및 가족관광 프로그램 확충)
		소외계층 복지관광 (장애인·노약자 친화적 관광시설 기준 마련, 수화가 가능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지원, ‘관광나눔 바우처’ 제도 도입)
		숙박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 도입, 중저가 숙박 시설 관광기금 융자조건 금리 완화, ‘Korea Pass’ 및 관광 KS마크 도입)
	시장친화	단기관광 활성화 대책 (관광 관련업체 특별 지원 프로그램, 관광침체 국면 전환을 위한 안전·건강여행 캠페인)
		민간투자 제도개선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 허용, 국공유지 장기 저리임대 토지부담 경감, 관광산업펀드 도입)
		고부가산업 육성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MICE 매카로 도약, 쇼핑관광·환승관광객 유치 및 한류 관광 마케팅 강화)
		한중일 협력 강화 (중국관광객 확대를 위하여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한·중·일 관광협력 강화 및 한류 관광 마케팅 강화)
	한국형 콘텐츠 강화	명품 콘텐츠 발굴 (한국관광 10대명품 콘텐츠 발굴 및 집중 육성)
		관광재생 프로젝트 (전통문화관광도시의 재충전 프로그램, 유흥시설의 관광자원화, 야간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테마형 관광국토 구축 (선형 관광자원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테마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형 기초관광권 개발)
		창조관광 실현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시범사업 추진)

2)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2009년 12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 지난 정부는 2009년 12월,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산업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발표함

■ 지역 투자 촉진 및 인프라 개선, 자원 확충 정책 제시

-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은 지역 관광 투자촉진과 인프라 개선, 지역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관광부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실현,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사업추진 시스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추진전략이 제시됨

<표 III-40>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전략 및 추진과제

구분	전략	추진과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2009.12)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관광단지 민간투자 여건 개선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관광특구에 대한 건축 및 영업에 관한 특례 확대
		관광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관광 접근성 향상 및 관광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관광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교통수단 도입
		중저가 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객 편의제고를 위한 안내시스템 개선
		비자제도 개선으로 외래 관광객 입국편의 개선
	지역 관광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
		지역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확충
		숨겨진 지역 우수관광 자원 발굴 및 홍보
	관광부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실현	녹색관광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MICE, 의료관광, 해양항공레저 등 미래형 관광산업 육성
	「정부-지자체-민간」 사 업추진 시스템 개선	(문화부)사업 조정·평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지자체)지역간(내) 협력 확대, 투자 유치, 특색 있는 자원 개발
		(지역주민)주민참여 및 기업 참여 확대

3)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 2011년 6월,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 지난 정부는 2011년 6월, 국내관광 수요를 진작하고 지역관광 여건을 개선하고자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국내관광 수요 진작 및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정책 제시

-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은 국내관광 수요 진작을 위한 홍보 및 휴가제도 개선, 여행비용 절감 대책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함
- 한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산업의 확충과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정책과 지역자원에 기반한 콘텐츠 육성 정책 등을 제시함

<표 III-41>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전략 및 추진과제

구분	전략	추진과제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2011.06)	국내관광 수요 진작	홍보 및 캠페인 전개(지역관광활성화 특별 관광 캠페인 전개, 대한민국 구석구석 공식행사 활용)
		제도 개선 추진(국민여가 시간 확대 및 연가 보상제도, 학습관광 활성화)
		여행비용 절감 대책(가구당 국내여행비용 소득 공제, 여행마우처)
		해외 여행수요 국내 전환(민간의 단체관광 국내 전환)
	관광산업 환경개선	관광 숙박시설 확충(제도개선 및 민간투자여건 조성, 체험시설 명품화 및 시범사업 추진)
		지방공항 활성화(항공신규노선 적극 추진)
		쇼핑인프라 적극 확충(동북아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 육성)
		지역먹을거리 활성화(지역별 대표 먹을거리 육성 및 환경개선)
		외국인전용카지노 활성화(외래관광객 방문거점 중심으로 활성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여행업계 카드수수료 인하)
	관광콘텐츠 개발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문화관광해설사의 사회적기업화 추진)
		수변·생태관광(강변체육시설 설치로 레저스포츠 활성화, 4대강 지역방문 축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생태·문화·체험·의료관광 활성화(역사자원의 고품격 관광명소 조성,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한류관광 콘텐츠 확충(한국 대표 영화·드라마의 관광자원화)
		국제적 관광명소 개발(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나. 예산 운용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예산 구성

■ 관광 예산 규모는 증대, 문체부 전체 예산에서 비중은 축소

-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체 예산 약 4조 1천억원 중 관광부문 예산은 약 1조 1천억원으로, 4분의 1수준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관광 부문 예산은 연평균 5%씩 증가해 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이 약 10%씩 증가해온 것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관광 예산 중 세출예산이 47%, 기금이 63% 차지

- 관광 예산 1조 1천억원 중 세출예산이 4천억원으로 47%, 기금이 7천억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에 비해 기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관광부문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에 불과하여 관광 예산 운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음을 시사함

■ 세출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심 편성

- 전체 세출예산 4천억원 중 광역지역발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98% 수준으로 관광기반구축 및 자원개발에 예산 소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임

<표 III-4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 구성

(단위: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금액	비중	
문체부 계	28,577	31,747	34,557	37,194	41,723	100.0	9.9
관광부문 계	8,948	8,901	9,257	9,829	10,964	26.3	5.2
세출 예산	3,090	3,237	3,838	3,741	4,053	9.7	7.0
일반회계	106	111	118	68	69	0.2	-10.2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984	3,125	3,720	3,672	3,985	9.5	7.5
기금	5,858	5,664	5,419	6,088	6,911	16.6	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융성시대의 문화예산 세출구조 개혁 연구

2) 관광정책 영역별 예산 구성

■ 관광진흥기반 구축에 관광예산의 45%의 예산 소요

- 전체 관광예산 1조 1천억원 중 관광진흥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세출예산 4천억원, 기금 1천억원으로 약 4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관광진흥기반 구축 세출예산과 기금은 각각 연평균 7%, 10%씩 증가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기반 구축 및 자원 개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점차 증대되고 있음

■ 외래 관광객 유치에 관광예산의 19% 소요

-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소요하는 예산은 한해 2천억원 수준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양적 확대 수준에 비해 예산 지원 비중은 크지 않은 수준임

■ 관광산업 지원 예산은 8.4%(융자 예산 26.6%)

- 관광산업 발전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한해 1천억원 수준이며 연평균 약 4%씩 감소하고 있어 예산 지원분이 상대적으로 적음

<표 III-4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예산 구성

(단위: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금액	비중	
관광진흥기반확충	3,032	3,154	3,729	3,671	3,968	36.2	7.0
외래관광객유치	16	17	18	16	16	0.1	0.1
관광레저도시육성	10	27	52	15	29	0.3	28.9
사감위 운영	32	38	40	39	41	0.4	6.5
관광진흥기반확충 (기금)	678	670	635	949	996	9.1	10.1
관광산업육성 (기금)	1,083	954	788	822	925	8.4	△3.9
외래관광객유치 (기금)	1,713	1,904	1,865	1,855	2,070	18.9	4.8
관광산업기금융자 (기금)	2,385	2,136	2,131	2,462	2,920	26.6	5.2
합계	8,948	8,901	9,257	9,829	10,964	100.0	5.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융성시대의 문화예산 세출구조 개혁 연구

다. 법·제도 개선

1) 규제 완화

■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완화, 관광개발 자율성 강화

- 지난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여 감세 및 부담금 완화,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정책을 시행함
- 세제 및 부담금 완화 정책으로는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 관광호텔 부속토지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등록세 완화 등이 추진됨
-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정책으로는 관광휴양지 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관광(단)지 개발 사업 법인의 농지취득 허용,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됨

<표 III-44> 규제완화 추진 성과

구분	내용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연장
	관광호텔 부속토지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등록세 완화
	여행업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문·종합휴양업 추가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조세부담 완화
관광개발 진입장벽 해소 및 자율성 강화	관광휴양지 내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법정 조경면적 완화
	관광휴양시설 개발 시 보전임지 편입 비율 완화
	관광(단)지 개발 사업 법인의 농지취득 허용
	관광사업지역 부지 내 옥외광고물 허가의무 제외
	관광숙박업의 객실 위탁경영 허용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 확대
	실내관광공연장 등록기준 완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④ 관광

2) 제도 개선

■ 관광개발 규제, 관광분야 종사자 관련 법 등 개선

- 관광개발 시 적용받는 복잡한 절차 및 규제가 관광개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 확대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제도개선 정책을 추진함
- 이에 따라 관광(단)지 등 관광개발 관련 규제, 관광분야 종사자 관련 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산업에 대한 불합리 규정 등이 크게 개선되었음

<표 III-45> 제도개선 추진 성과

구분	내용
관광개발 관련 규제 개선	관광(단)지 지정신청 전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 개선
	관광(단)지 개발 사전환경성제도 등 절차 개선
	관광개발 시 경관평가 중복 개선
	관광개발 관련 경미한 변경의 절차 간소화
	산지전용허가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확대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
	관광단지의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처리 개선
관광분야 종사자 관련 법 개정	국외여행인솔자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 신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 폐지
	실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일부 면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	출국납부금 부과 이의신청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관광산업에 대한 불합리 규정 개선	휴양콘도미니엄 갱신계약 및 채분양 규정 개정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시 회원 동의 의무 완화
	유스호스텔 숙박시설기준 개선
	유기시설 부적합 이용자에 대한 이용거부 규정 명시
	유원지 내 설치가능시설 확대
	유원지 내 가설건축물 신고 후 건축 허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④ 관광

■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개선, 숙박시설 확충 관련 제도 개선

-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개선, 숙박시설 확충, 고수익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각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추진함
- 매년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비자제도, 음식서비스, 관광안내체계 등을 개선함
- 수도권에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관광숙박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함
- 또한, 고수익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사업의 고도화 및 MICE산업 육성을 지원함

<표 III-46> 기타 제도개선 사항

구분	내용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개선	비자제도 개선
	음식서비스 개선
	관광안내체계 개선 - 외국인 친화적 관광안내시스템 정비 - 편리·안전·친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관광객 탑승차량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숙박시설 확충	용적률 완화 및 소형호텔업 허용
	관광기금 용자 확대 및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급제 개선, 인력 양성 및 지방호텔 지원
	중저가 대체숙박시설 확충
고수익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의료관광사업의 고도화 - 의료관광 관련 법률 제정,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허용, 외국인 환자 원내 조제 허용,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MICE 육성 -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MICE 정보시스템 구축, MICE 참가자 입국편의 제고, 영세 국제회의기획업체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④ 관광

2. 제 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 현황

가. 제 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동북아지역의 매력 관광부국

- 세계최고의 관광산업 성장지역인 동북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우위와 함께 수려한 자연자원, 명품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관광이미지의 제고를 통해 독자적 지위를 확보
- 이를 위해 관광 개발, 관광산업 선진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및 수준이 향상되는 觀光富國을 지향
- 관광을 통해 전국토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향상되며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觀光富國을 지향

■ 목표 : 2013년 2008년 150% 수준으로 향상

- 관광 이미지 확산과 고품질 관광 매력물 창출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세계 21위, 국가 브랜드를 20위권 내로 향상
- 브랜드 가치제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상품 확충, 선진국 수준의 수용태세 확충, 전략적 관광객 유지를 통해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개막
- 관광매력도의 제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및 상품의 개발, 관광쇼핑여건 개선 등을 통해 관광수입 150억불 달성
- 지역관광활성화와 국민관광 참여여건 개선으로 연 12일 수준의 국민관광 참여일 수를 18일 수준으로 높여 국민국내관광 총량 7억명, 관광소비액 24조원 시대 개막
-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와 관광수입 150억불, 국민국내관광 소비 지출액 24조원 달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시장규모를 35조 원 규모로 확대
- 관광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창업여건의 개선을 통해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170만개로 경제성장에 기여

나. 제 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성과

1) 계량적 성과

■ 국가 브랜드 및 외래관광객 수 목표 달성

- 제 3차 관광진흥 5개년계획의 2013년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목표는 21위이나, 2012년 말 기준 관광산업 경쟁력은 25위로 성과 미달성
- 2013년 국가 브랜드 목표는 20위권 내 진입이었으며, 2012년 말 기준 27위로 성과 달성
- 2013년 외래관광객 수 목표는 1,000만명이었으며, 2012년 말 기준 외래관광객 수는 1,114만명으로 성과달성
- 2013년 관광수입 목표는 150억불이었으나, 2012년 말 기준 134억불로 성과 미달성
- 2013년 국민관광 총량은 7억일을 목표로 하였으나, 3.6억일로 성과 미달성
- 2013년 국민국내관광 소비액은 24조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0.4조원으로 성과 미달성
- 2013년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목표는 170만개였으나, 8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과 미달성

<표 III-47> 관광진흥 5개년계획의 계량적 목표 및 성과

구분	2013년 목표	2012년 말 기준 성과	비고
관광산업 경쟁력(WEF)	21위	25위	성과 미달성
브랜드(Anholt)	29위/50개국	27위/50개국	성과 달성
외래관광객	1,000만명	1,114만명	성과 달성
관광수입	150억불	134억불	성과 미달성
국민관광 이동총량	7억 일	3.6억 일	성과 미달성
국민국내관광 소비액	24조원	20.4조원	성과 미달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170만개	85만개	성과 미달성

2) 정책추진 성과

■ 주요과제 대부분은 정책으로 추진

- 제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주요 회의 안건으로 제시되거나 정책으로 추진됨
- 55개 주요과제 중 주요 회의안건으로 포함된 과제가 13개이며, 실제 정책으로 추진된 과제가 38개임

<표 III-48> 제 3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추진전략	주요과제	비고	
		회의안건	정책추진
신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발전체계 구축	MICE산업 육성체계 구축	●	●
	수상레포츠 산업 편입 및 집중육성		●
	의료관광 관련 법·제도 신설 및 개정		●
	크루즈 기항지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
	음식관광 상품 개발 지원		●
	휴가분산 문화 확산	●	
	공휴일 제도 선진화	●	
	관광지 통합이용권 운영		●
	청소년 대상 국민관광 이해증진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상품 개발	●	●
	관광 및 관련 시설의 무장애 추진(Barrier Free)		
	민관공동투자사업 발굴 및 시행		
민간중심의 관광산업 발전기반 구축	교육과정 인증 프로그램 도입		●
	공공부문 인증 교육과정		●
	3개 관광산업 우선적 R&D지원제도 도입		●
	관광통계시스템 구축		●
	관광진흥법에 소비자 권익보호 조항 신설	●	
	관광개발 토지이용규제 완화	●	
	민간투자 촉진 제도적 환경 구성	●	
	지역공동협의체(LTB) 구성 및 운영		

(표 계속)

추진전략	주요과제	비고	
		회의안건	정책 추진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관광산업 취약성 평가		
	관광부문 온실가스 배출관리 제도마련		
	생태환경 관광도시 시범도시화 사업		●
	친환경 관광(단)지 리모델링 확대 지원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평화생명지대(PLZ) 관광자원화		●
	이야기가 살아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 사업 추진		●
	강변 관광문화 활성화		●
	강변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
	관광국토 디자인 구축		●
명품콘텐츠의 관광자원화로 관광 매력도 제고	광역권 관광발전체계 재정비		●
	도시관광 활성화 지원		●
	한국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
	지역 관광 매력 자원 확충	●	●
	10대 명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농산어촌 체험관광의 고품질화		
	낙후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2009-2013 한국방문의해 성공적 개최		●
관광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지자체 공동 마케팅 확대		●
	쇼핑시설 인증제 도입		●
	지역관광 수용태세 정비 지원		●
	해외 관광 광고·홍보의 확대		●
	잠재 방한 관광시장의 확대 및 신흥시장 개척	●	●
	한·중·일 관광협력 기반 확대	●	●
	국제기구와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통합적 관광안내체계 구축		●
관광선진국에 걸맞는 수용태세 구축	1330 관광안내전화 확대 운영		●
	주요국 방한객 대상 비자절차 간소화	●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	●
	국민 휴양촌 조성		
	면세점 및 쇼핑인프라 균형적 확충	●	●
	안전한국 캠페인 실시		
	국민 인식 제고 사업 추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④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2008~2012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2009~2013), 2009년~2012년 기준 관광동향에 대한 연차보고서

1. 평가 체계

■ 평가 목적

- 지난정부의 전반적 관광 정책,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현 정부의 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평가 조사 대상

- 평가를 위한 조사는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교수 및 연구원 등 관광분야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총 31인을 대상으로 함

■ 평가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은 E-mail 및 우편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설문지는 관광 정책 관련 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정량적 점수를 기입하고 기타 의견을 제시하도록 설계함
- 조사기간은 2013년 12월 17일일부터 26일까지 10일에 걸쳐 진행함

■ 주요 평가 내용

- 정책 평가
 - 지난정부 관광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부문별 관광정책(국민관광 진흥, 국제관광 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
- 예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평가
- 행정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구조에 대한 평가

2. 평가 결과

가. 정책 평가

1) 정책 전반 평가

■ 지난 정부의 관광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지난 정부의 국민관광, 국제관광, 관광개발, 관광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모두 보통(3.0)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외래관광객 천만명 시대의 돌파에 기인한 국제관광정책은 지난 정부 정책 중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정적인 의견은 제시 되지 않음
- 관광산업 정책은 국제관광정책 다음으로 긍정인 정책으로 평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민관광정책, 관광개발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내수관광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관광 및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정책에 대한 정책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함

<표 III-49> 지난정부 관광정책의 전반적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국민관광진흥	0.0	25.0	43.8	31.3	0.0	3.1
국제관광진흥	0.0	0.0	28.1	59.4	12.5	3.8
관광자원개발	3.1	18.8	53.1	21.9	3.1	3.0
관광산업육성	0.0	3.1	50.0	43.8	3.1	3.5

2) 부문별 정책 평가

① 국민관광진흥

■ 국민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및 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 국민관광 진흥 정책은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각각 3.4점, 3.8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복지관광 정책 또한 3.1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반면, 남북관광 교류 협력 정책 평가는 낮은 편

- 남북관광 교류협력은 남북간 관계 악화에 따라 관광 및 교류활동이 줄어들면서, 78.1%가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함

<표 III-50> 지난정부 국민관광진흥 정책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0.0	3.1	50.0	46.9	0.0	3.4
국민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	0.0	6.3	21.9	56.3	15.6	3.8
복지관광 지원	0.0	18.8	56.3	21.9	3.1	3.1
남북관광 교류 협력	40.6	37.5	12.5	9.4	0.0	1.9

② 국제관광진흥

■ 국제관광정책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 국제관광 진흥정책에 대한 평가는 모든 항목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항목이 많지 않은 편임

■ 출입국 간소화, 국제협력, 관광정보 제공이 특히 높게 평가

- 출입국 간소화 부문은 4.2점으로 국제관광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국제협력과 관광정보 제공 부문도 3.8점으로 높게 평가됨

■ 쇼핑 및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쇼핑관광 지원이 3.2점, 관광서비스 개선 부분이 3.3점으로 평가되어, 외래 관광객 환대 및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51> 지난정부 국제관광진흥 정책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해외관광 진흥활동	0.0	0.0	46.9	46.9	3.1	3.5
국제협력 증진	0.0	3.1	34.4	46.9	15.6	3.8
쇼핑관광 지원	0.0	12.5	53.1	34.4	0.0	3.2
출입국 절차 간소화	0.0	0.0	3.1	68.8	25.0	4.2
관광정보 제공	0.0	6.3	25.0	56.3	12.5	3.8
관광서비스 개선	0.0	12.5	53.1	31.3	3.1	3.3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3.1	3.1	37.5	50.0	6.3	3.5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3.1	18.8	18.8	46.9	12.5	3.5

③ 관광자원개발

■ 녹색관광 및 한국형 콘텐츠 개발 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

- 지난정부의 관광자원 개발 정책에 있어 녹색 인프라 확충, 한국형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 등 소프트한 개발 정책 부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 관광(단)지, 관광특구, 광역권개발 등 개발사업 평가 보통

- 관광(단)지, 관광특구, 광역권 관광개발, 문화 및 생·녹자원 개발 사업 등 모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광역권 개발에 대한 평가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남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평가는 2.2점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70%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2> 지난정부 관광자원개발 정책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0.0	9.3	62.5	25.0	3.1	3.2
광역권 관광개발	0.0	28.1	50.0	21.9	0.0	2.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15.6	53.1	21.9	6.3	0.0	2.2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자원 개발	0.0	12.5	56.3	25.0	6.3	3.3
녹색 인프라 확충	0.0	6.3	25.0	43.8	25.0	3.9
도시관광 활성화	0.0	28.1	46.9	25.0	0.0	3.0
문화관광축제 육성	3.1	6.3	46.9	40.6	3.1	3.3
한국형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	0.0	12.5	25.0	46.9	15.6	3.7

④ 관광산업육성

■ 관광산업 업종 및 사업별 정책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

- 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정책 부문이 보통이 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부문도 나타나지 않음

■ 업종별로는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숙박업 정책이 높게 평가

- 업종별로는 관광편의시설업과 관광숙박업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각각 71.9%, 59.4%의 전문가가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에 대한 평가 미흡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평가는 2.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지노업과 유원시설업도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사업별로는 관광인력 양성 정책이 높게 평가

- 사업별로는 관광인력 양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문가의 59.4%가 관광인력 양성에을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 III-53> 지난정부 관광산업육성 정책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업종별	관광숙박업	0.0	0.0	40.6	50.0	9.4	3.7
	여행업	0.0	6.3	56.3	37.5	0.0	3.3
	관광객이용시설업	0.0	25.0	56.3	15.6	0.0	2.9
	국제회의업	0.0	6.3	34.4	50.0	9.4	3.6
	관광편의시설업	0.0	0.0	28.1	65.6	6.3	3.8
	카지노업	0.0	12.5	56.3	28.1	3.1	3.2
	유원시설업	0.0	9.4	62.5	25.0	3.1	3.2
사업별	관광인력 양성	0.0	6.3	34.4	53.1	6.3	3.6
	관광인력 자격제도	0.0	9.4	65.6	21.9	3.1	3.2
	관광서비스 혁신 R&D사업	0.0	25.0	25.0	46.9	3.1	3.3

나. 예산 및 운용관리 평가

■ 일반회계 및 기금 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

- 관광 관련 일반회계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평가는 각각 3.3점과 3.4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부정적인 의견은 나타나지 않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지난정부에 운용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적절성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

<표 III-54> 지난정부 예산 및 운용관리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관광관련 일반회계의 운용 및 관리	0.0	21.9	59.4	18.8	0.0	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	0.0	40.6	50.0	9.4	0.0	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적절성	0.0	28.1	59.4	12.5	0.0	2.8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및 관리	0.0	9.4	43.8	46.9	0.0	3.4

다. 행정조직 및 구조 평가

■ 행정의 조정력, 조직 구조 및 규모에 대한 평가는 보통

- 행정조직의 조정력, 구조 및 규모의 적정성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책 및 예산 평가가 대체 3점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모두 3점 이하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청와대 내 관광진흥비서관 직제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

- 행정조직 및 구조 평가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문은 청와대 내 관광진흥비서관 직제를 신설한 것으로 3.9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80%이상이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함

<표 III-55> 지난정부 행정조직 및 구조 평가

(단위 : %, 점)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관광관련 행정조직의 이해관계 조정력	0.0	28.1	62.5	9.4	0.00	2.8
관광관련 행정조직 규모의 적정성	0.0	28.1	50.0	21.9	0.00	2.9
관광관련 행정조직 구조의 적정성	0.0	31.3	50.0	18.8	62.5	2.9
청와대 내 관광진흥비서관 직제 신설	0.0	6.3	15.6	62.5	15.6	3.9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집중 필요

- 국민국내관광 부문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성과평가 결과가 국제 관광, 관광산업 등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내수 관광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국내관광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확대와 집중이 필요함

■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 필요

- 국제 관광에 있어서는 외래관광객 1,000만명 돌파라는 양적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관광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상품 등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단계인 것으로 평가됨
- 외래관광객의 양적 수용 확대에서 질적 수용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서비스 향상, 부가가치 창출 등 전반적인 질적 수용 개선을 위한 정책 도입 필요

■ 예산 활용의 융통성과 실효성 확보 필요

- 관광시장의 확대 수준에 비해 정부 관광 예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에 대한 예산 소요가 집중되면서 예산활용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관광 예산의 규모 및 비중을 증가시키고,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의 활용도를 확대하여 예산활용의 융통성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행정조직의 효율성 및 연계 협력 강화 체계 필요

- 관광행정조직의 이해관계 조정력, 구조 및 규모 등 전반적인 적정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 정비 필요하며, 정책 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의 도입이 필요함

<표 III-56> 종합평가 및 시사점

구분	종합평가	시사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국내관광 부문의 목표 달성 정도 및 성과평가 결과 미흡 · 국제 관광에 있어서는 양적목표는 달성했으나 질적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집중 필요 ·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 필요
예산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광 예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활용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활용의 융통성과 실효성 확보 필요
행정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행정조직의 조정력, 구조 및 규모 등 전반적인 적정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의 효율성 및 연계 협력 강화 체계 필요

1. 관광 비전

■ 창조관광, 국민행복, 국제관광, 융합 등을 주요 비전 키워드로 제시

- 31인의 관광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 관광정책의 비전 설정을 위한 주요 키워드로 창조관광, 국민행복, 국제관광, 융합 등을 제시함

■ 관광을 통한 국가 발전과 융성 강조

-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창조, 선도, 리더, 혁신 등을 주요 키워드로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관광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함

■ 어메니티 높은 국민 삶의 질과 행복 강조

- 또한 행복, 복지, 가치, 치유, 공공, 공유 등을 주요 키워드로 포함하여 국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관광의 역할을 강조함

■ 경제 융성과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관광비전 설정 필요

- 현정부 관광정책 비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관광을 통한 국가 경제 부흥 및 융성,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수렴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제 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관광비전은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국가 경제 융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 및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추진과제

■ 관광산업 분야 주요 추진과제

- 관광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관광산업부문 주요 과제로 관광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투자 활성화, 인재 육성 등을 제시함
- 관광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확립, 관광사업체 연계 및 동반성장 체계 마련 등을 제시함
-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관광산업 업종분류 체계 정비, 중소규모기업 인센티브 제공, 신규 창업지원, R&D강화 등을 제시함
- 투자 활성화 및 인재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민간투자 규제 완화 및 참여 확대, 관광인력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관광산업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함

■ 국제관광 분야 주요 추진과제

- 전문가들은 국제관광 분야 주요 과제로 관광품질 향상,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신규 관광시장 창출, 한국 관광의 위상 강화 등을 제시함
- 관광품질 향상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숙박, 음식, 교통 등 관광수용태세 전반에 대한 개선, 저가 관광상품 근절 및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 관광객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함
-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신규 관광시장 창출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시장 맞춤형 마케팅 실시, 신규 관광시장 비자제도 완화 및 현지 유치 활동 강화 등을 제시함
- 한국관광 위상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관광 ODA 사업 확대, 국가 관광 브랜드 제고, 주변국과 관광협력 강화, 국제적 관광거점 조성 등을 제시함

■ 융합관광 분야 주요 추진과제

-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융합관광분야 주요 과제로 주요 융합 관광산업 육성 및 강화, 새로운 자원과 관광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등을 제시함
- 주요 융합 관광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마이스, 의료, 크루즈, 레저스포츠 등 기 활성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 새로운 자원과의 융복합 활성화에 있어서는 종교, 역사, 교육 등 문화 자원, K-컬처 및 한류문화 자원, 축제 및 생활 문화 등과의 융복합 관광 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 한편,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분야 개발 지원과 이를 통한 관광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체계화 등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음

■ 지역관광 분야 주요 추진과제

-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지역관광분야 주요 과제로 지역 관광자원의 확충 및 보완, 지역 주도형 관광 활성화 체계 구축, 국민관광 여건 개선 등을 제시함
- 지역 관광자원의 확충 및 보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관광자원의 재생 및 재창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리 체계화, 도시관광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함
- 지역 주도형 관광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지역 관광진흥협의체의 구축, 지역 관광인력의 양성 및 활용 확대, 주민주도적 관광개발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시함
- 국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근로자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함

IV. 비전과 전략

1. 정부 관광정책 방향과 기초
2. 비전과 목표
3. 추진 전략

1. 국정운영 방향

가. 국정비전

-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희망의 새시대”

나. 4대 국정기조

-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통한 **“경제부흥”**
-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행복”**
- 문화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문화융성”**
-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신뢰외교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



2. 관광 분야 국정과제

1) 개요

- 「문화 융성」 3대 전략 및 10개 과제 중 문화와 산업의 융합전략에서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하기 위한 과제 제시
-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 관광객 1,600만 명을 달성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2) 주요 추진 계획

-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 한국관광 홍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단체와 관광진흥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관광 거버넌스 체제 정립”**
- 창조관광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서비스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해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저가관광을 탈피하여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
-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환경 (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 관광숙박산업 다양성 확대 등 통해 **“전략적 상품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
- 여행산업의 건전육성, 국민 국외여행 안전제고를 위한 **“공적 서비스제공 및 여행업법 제정”**
- 사증발급 간소화, 출입국전용심사대 및 체류지원 전용 카운터 운영, 방문우대카드 발급 등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 GCF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잠재 관광수요 개척 및 국격 제고를 위한 관광분야 ODA확대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

1. 주요 정책 키워드

■ 정부의 창조, 행복, 상생 관광 비전 제시

- ‘창조경제론’에 대한 관광정책 관점의 재해석을 통하여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제시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며, 행복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관광향유 확대 유도,
- 관광 송출지와 지역사회, 관광기업과 비관광기업,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상생관계 유도

■ 창조 관광, 국민행복증진, 국제 강국, 융합 등 키워드 설정

-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과 관광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키워드를 “창조관광”, “국민행복증진”, “국제 강국”, “융합확산”, “지역관광” 등을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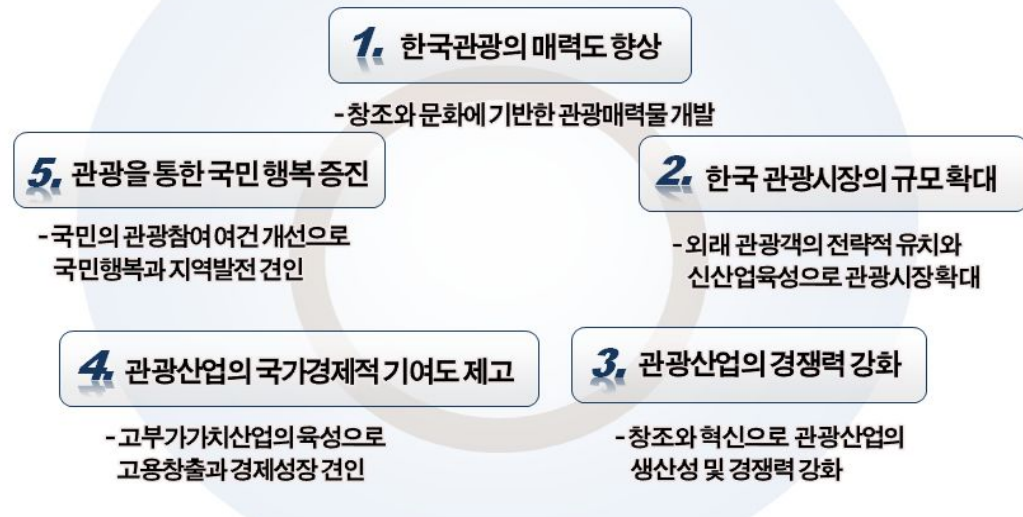


2. 2018 관광 비전

■ 비전 :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융성하는 대한민국

- 관광산업은 국민과 외래관광객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산업임
- 창조와 혁신에 기반한 관광산업 발전을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역할 확대
- 국제적인 매력을 보유한 관광자원과 상품 개발, 고품질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외국인 관광객에 최고의 경험으로 만족을 높이고 동북아 관광시장을 선도하도록 함
- 관광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경제가 새로운 활력으로 융성하는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달성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융성하는 대한민국



<그림 IV-50> 2018 관광비전

■ 관광정책의 방향

- 관광비전의 달성을 위해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한국 관광시장의 규모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순환적이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 설정
- 한국관광의 매력도 향상
 - 창조와 문화에 기반한 관광매력물 개발
- 한국 관광시장의 규모 확대
 - 외래관광객의 전략적 유치와 신산업육성으로 관광시장 확대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창조와 혁신으로 관광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의 국가 경제적 기여도 제고
 -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 견인
-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 국민의 관광참여 여건개선으로 국민행복과 지역발전 견인

3. 정책 목표

■ 2018년 외래관광객 1,700만 명 유치 목표

- 2018년 외래관광객 수는 1,700만 명으로 2012년 1,114만 명의 목표보다 약 50% 수준으로 향상하여 목표를 설정함

■ 2018년 관광수입 255억불 달성

- 2012년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액 1,207불을 2018년 1,500불로 확대하여 관광수입액 255억불을 달성하도록 함

■ 2018년 국민국내관광총량은 508백만일 달성

- 국민관광참여여건 개선 및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를 통해 2012년 국민 1인당 연간 8.4일의 여행일수를 2018년까지 연간 11일의 참여를 유도하여 508백만일의 국민국내관광총량 달성함

■ 2018년 국민 국내관광소비액 32조원 달성

- 2012년 기준 24조원의 국민 국내관광 소비액은 국민관광총량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2018년 32조원으로 상향하여 목표를 설정함

■ 2018년 100만 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 관광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규모는 2012년 85만개에서 관광산업 성장률을 반영하여 2018년 100만개로 일자리 규모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2012년 기준	2018년 목표
① 외래관광객 수	1,114만명	1,700만명
② 관광수입	134억 불	255억 불
③ 국민 국내관광참여일수	8.4일	11일
④ 국민 국내관광소비액	24조원	32조원
⑤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85만개	100만개

<그림 IV-51> 2018 정책목표

3

추진 전략

1. 부문별 추진전략

■ [관광산업]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 한국관광시장의 규모 확대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제관광] 동북아 관광리더 위상 확립

- 한국관광의 위상 강화 및 관광산업의 국가 경제적 기여도 제고

■ [지역관광] 품격과 활력 있는 지역관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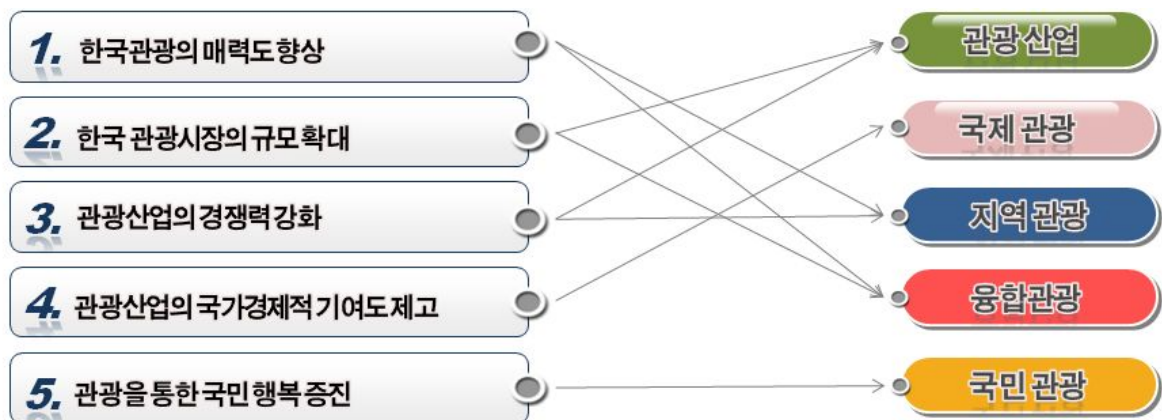
- 지역성과 문화에 기반한 관광 매력 향상으로 지역관광 활력 부여

■ [융합관광] 고부가 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

- 창조경제시대 융복합을 통한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민관광]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및 한국관광의 매력도 향상



<그림 IV-53> 부문별 추진전략

2. 전략별 추진방향

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원
- 지식서비스형 관광기업 육성 기반 마련
- 시장친화적 관광투자 활성화
- 관광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 창의적 관광인재 육성

나. 동북아 관광리더 위상 확립

- 한국관광 품질 제고
- 시장맞춤형 외래객 유치
- 관광수용태세 선진화
- 국제관광 협력 확대

다. 품격과 활력 있는 지역관광 육성

-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 육성
- 창조적 문화관광 활성화
-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라. 고부가 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

- 의료·MICE·크루즈 3대 융복합 관광산업 집중 육성
- 고부가 선도형 레저관광산업 중점 육성
- ICT 융복합을 통한 관광산업 고도화

마.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 국민관광 향유 여건 개선
-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
- 지역관광 활성화 주체 및 협력체계 육성

정책
목표

1. 한국관광의 매력도 향상
2. 한국 관광시장의 규모 확대
3.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4. 관광산업의 국가 경제적 기여도 제고
5.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전략 ①

<관광산업>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정책
과제

-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지원
- 시장친화형 관광투자 활성화
- 지식서비스형 관광기업 육성 기반 마련
- 관광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 창의적 관광인재 육성

전략 ②

<국제관광>

글로벌 관광리더 위상 확립

정책
과제

- 한국관광 품질 제고
- 관광수용태세 선진화
- 시장맞춤형 외래객 유치
- 국제관광 협력 확대

전략 ③

<지역관광>

품격과 활력 있는 지역관광 육성

정책
과제

- 세계적 수준의 관광거점 육성
-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
- 창조적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④

<융합관광>

고부가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

정책
과제

- 의료·MICE·크루즈 3대 융복합 산업 집중 육성
- 고부가 레저스포츠 관광 육성
- ICT 융합관광 서비스 혁신

전략 ⑤

<국민관광>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정책
과제

- 국민관광 향유 여건 개선
- 지역관광 활성화 주체 및 협력체계 육성
- 지역관광 수용태세 개선

추진
기반

- ▶ 융합형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축
- ▶ 관광 재정의 실효성 제고
- ▶ 관광 법제도 정비

V. 부문별 정책과제

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2. 동북아 관광리더 위상 확립
3. 품격과 활력 있는 지역관광 육성
4. 고부가 융복합형 전략관광산업 육성
5. 국민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1. 정책방향

- 관광기업의 수익구조 개선, 신규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를 통한 산업성장 기반 강화
- 관광분야의 대·중소기업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관광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관광산업의 대외 개방과 경쟁 촉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2. 정책목표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 관광기업간 상생 협력 촉진 동반성장 문화 확산
- 관광산업의 대외 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 친화적 관광투자 활성화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 육성 체계화

기본방향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구축

정책 목표

-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
- ▶ 관광기업간 상생 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 ▶ 관광산업의 대외 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 친화적 관광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

-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체계화
- 전략 1.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원
- 전략 2. 지식기반형 강소관광기업 육성
- 전략 3. 시장친화적 관광투자 활성화
- 전략 4. 관광창업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 전략 5. 창의적 관광인재 육성

3. 세부 정책과제

가.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1) 관광산업 핵심주체간 거래관계 체계화

① 배경 및 필요성

■ 관광기업간 유통구조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

- 관광산업 생태계 내에서 관광기업간 또는 관광기업 및 소비자 등 주요 주체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 여행업계에서는 패키지 상품을 취급하는 랜드사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행사와 랜드사간 지상비 인하압력, 지불 연기, 과도한 업무 이행보증금 요구 등 불공정 거래가 지속됨
- 이외에 항공사 및 여행사간 하드블록 판매계약, 특급호텔 및 여행사간 비체계적인 거래관계 등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간 고착화된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됨

■ 주요 주체간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표준약관 개발 현황

- 관광부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으로 등록된 사안은 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과 소비자간 거래관계 및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간 표준약관 등 총 3건임

<표 V-1> 관광분야 표준약관 등록 현황

구분	목적	등록시기
여행업 표준약관	국내외 여행사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 규정	2007.6.1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입회 과정에서 거래주체간 필요사항 규정	2007.6.1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사이의 권리·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	2013.11.27

■ 주요 주체간 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문화산업 등 타분야에서도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간 거래 관계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2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포함한 공정거래 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함
- 따라서 관광분야의 공정거래 관계 체계화 및 기존에 개발된 표준약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체간 공정거래 질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공정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2).
- 영화산업, 건설기계 관련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서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제고함

<표 V-2> 관련부처 표준계약서 제도화 사례

구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조항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벌칙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 법제처 법률 정보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 주요 주체간 분쟁 조정을 위한 정책 요구 증가

- 관광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관광산업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참여주체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증가함
 - 환율이나 요금을 수시로 변경하고, 명확한 여행조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선택관광을 강요하는 사례
 - 여행사 경영능력 부족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
 - 항공사의 항공 커미션 제로화 정책 및 볼륨인센티브(VI: Volume Incentive) 제도 운영 사례
- 관광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주요 주체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관광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② 세부 추진 과제

■ 주요 주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관광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관광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관광소비자 및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계 근절을 위한 법조항 신설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광산업의 공정거래 질서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광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관광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측면에서 계약체결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에 준하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 주요 주체간 거래관계 체계화를 위한 표준약관 도입

- 여행업, 관광호텔업, 항공업 등 주요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

하는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개선사항이 반영된 표준약관을 도입함

- 업종간 거래관계 체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는 관련협회간 단협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에서는 표준계약서 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표준계약서는 권고 제도로써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단속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운영상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광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

- 관광사업자간, 관광사업자와 소비자간 관광상품 및 서비스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관광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함
 - 법학, 법률, 여행, 호텔, 항공 등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분야의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함
 - 관광사업자 간, 관광사업자와 소비자 간 관광상품 및 서비스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광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광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통하여 관광소비자 및 기업, 관광기업 및 기업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2) 관광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① 배경 및 필요성

■ 관광기업간 동반성장에 관한 인식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5대 역점 정책 중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은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규제 완화로 구분됨

- 특히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및 1차 협력사 외에 2,3차 풀뿌리 기업 동반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첫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산업혁신 운동 3.0 전개
- 둘째,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이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 셋째, 손톱 밑 가시를 발굴 및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

<표 V-3> 산업통상자원부의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육성 정책

구분	추진방향	추진과제
공정거래 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및 개선 • 1차 협력사 외에 2,3차 풀뿌리 기업 동반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 설치 •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활성화
산업 육성 성장 사다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및 중견기업 R&D 비중 확대 • 글로벌 산업기술인재 양성 및 지적재산권 대응역량 강화 • 유망 중소, 중견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성장가능기업 발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규모를 540억 원(2012) → 1,700억 원(2017) 수준으로 확대 • 자유공모형 R&D 확대로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기반 마련 • 중소기업 R&D 사업화 전담은행 제도 시행 • 글로벌 전문기업과 유망 중견기업간 1:1 매칭으로 멘토링 운영
규제사항 발굴 및 완화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제언제도 도입 •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품질, 인증 및 수수료 분야 규제완화 사항 집중 발굴 • 산업 융합 규제 개선 및 애로 해결 추진단 운영

주: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보고(2013.3.25)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 관광분야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모델 발굴이 요구됨

■ 세부 업종별 종사원 1인당 매출액 규모 편차

- 2012년 관광사업체 종사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약 9,430만원으로 2010년 7,290만원, 2011년 8,59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임

- 세부 업종별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유원시설업은 6,590만원, 카지노업 2억750만원으로 업종간 편차가 약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2012년 기준)

<표 V-4> 관광사업체 종사자 1인당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전체	72.9	85.9	94.3	8.4
여행업	63.4	81.2	91.6	10.4
관광숙박업	138.5	164.7	164.2	-0.5
관광객이용시설업	133.6	339.5	192.9	-146.6
국제회의업	163.9	169.8	176.9	7.1
카지노업	186.8	197.2	207.5	10.3
유원시설업	74.9	50.4	65.9	15.5
관광편의시설업	65.5	51.5	68.4	16.9

주: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② 세부 추진 과제

■ 관광기업간 분업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육성

- 관광산업의 동종 및 이종 산업간 융합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관광 플랫폼 기업을 육성함
 - 플랫폼 기업이란 전통적인 관광산업 구조 내에서 인터페이스 기능을 핵심으로 기업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산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함
-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시장 효율을 도모하고 대기업에서 접근 하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간 효율적인 연계를 유도함
- 대기업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관광 연계 상품 등 관광 시장의 잉여를 제고하기 위한 영역에서 창조관광사업과 연계를 통한 관광플랫폼 기업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함
- 관광 플랫폼 기업은 관광상품과 서비스간의 상호의존성을 전

제로 하며, 기업 외부적인 관계형성을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수직적 분업을 유도하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

- 관광 플랫폼 기업의 핵심 역할은 관광기업간 상호 교류 유도, 네트워크 효과 창출, 융합가치 창출 등임
- 관광시장의 자원 및 시설, 콘텐츠 등 가용 자원과 관련 정보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영역에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기업을 육성함
- 1~3급 관광호텔 객실제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업
- 소규모 여행사의 지방관광 상품 공동 운영 등 컨소시엄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

■ 관광부문 동반성장기업 인증제 도입

- 관광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관광시장의 잉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 발굴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관광산업 현장에서 기업간 필요에 의해 협력 및 제휴, 공동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부분 유사한 수준의 기업간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우수관광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관광기업간 협업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우수관광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인증제를 도입함

나. 지식서비스형 관광기업 육성 기반 마련

① 배경 및 필요성

■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증가

-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여행업, 관광호텔업 등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 탈피한 지식서

비스를 기반으로 한 신규 업종이 등장함

-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온라인 호텔예약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여행서비스를 유통하는 OTA(Online Travel Agency)와 여행 관련 서비스 업체가 급속도로 증가함
- 또한 관광 소비자가 작성한 호텔, 관광명소, 식당 등의 이용후기를 공유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
- 여행콘텐츠 공유의 대표적인 모델인 트립어드바이저는 2000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매월 5,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2011년에는 나스닥에 상장됨
-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강소기업은 익스피디아와 계열사인 호텔스닷컴, 프라이스라인과 계열사인 아고다 등이 있으며, 유럽 TUI의 계열사인 호텔베즈, 레이트룸스 등과 중국의 씨트립, 일본의 라쿠텐 등이 국제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관광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체계화 필요

-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은 대부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대여 또는 보조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 외에 관광종사원 교육훈련,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제1시장 부상, 개별관광객 중심의 시장 구조 변화 가속 등 급변하는 관광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온라인 유통채널 변화에 따른 대응력 요구 증가

- IT 분야의 기술 변화가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상품 유통 구조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틀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관광사업체 중 전자 상거래를 실시하는 비율은 25.1%로 미실시

기업이 74.9%로 높음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관광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 온라인 활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 호주 정부는 관광기관과 관광청을 중심으로 온라인 관광산업 데이터 설비(ATDW)를 구축하여 디지털 마케팅과 관광상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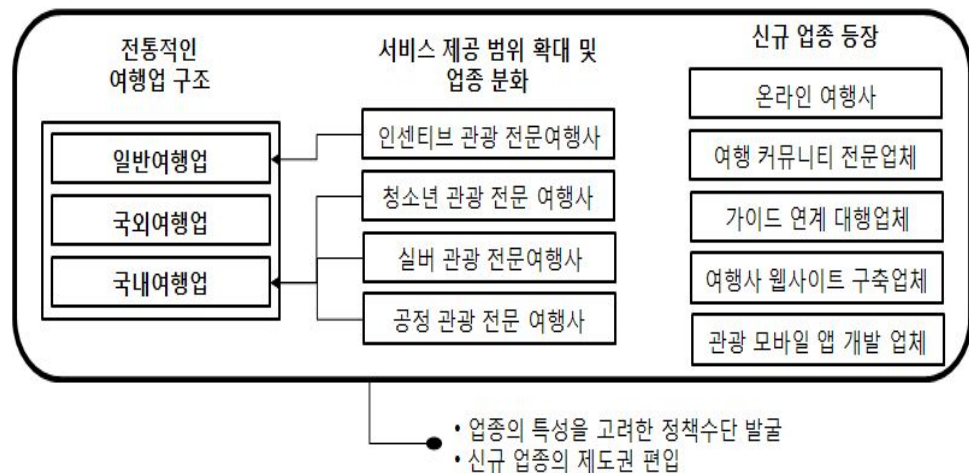
■ 관광서비스 R&D 투자 확대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 관광산업부문에서의 서비스혁신 및 서비스 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예산의 배정시 중장기계획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예산규모 확대함
 - 우리나라의 R&D 지원 예산은 11조원 규모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634억 원 수준
- 관광산업의 서비스 R&D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광산업 친화적인 R&D 지원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서비스 R&D와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 과제를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함

② 세부 추진 과제

■ 지식서비스형 관광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별 주요 기능 및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을 부문별로 재편함
 - 9개 대부문, 29개 세부문으로 구성
- 온라인 여행업, 개별관광객 대상 여행정보 제공 전문기업 등 관광산업 재분류에 대한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신규 사업 영역을 관광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관련법 체계를 개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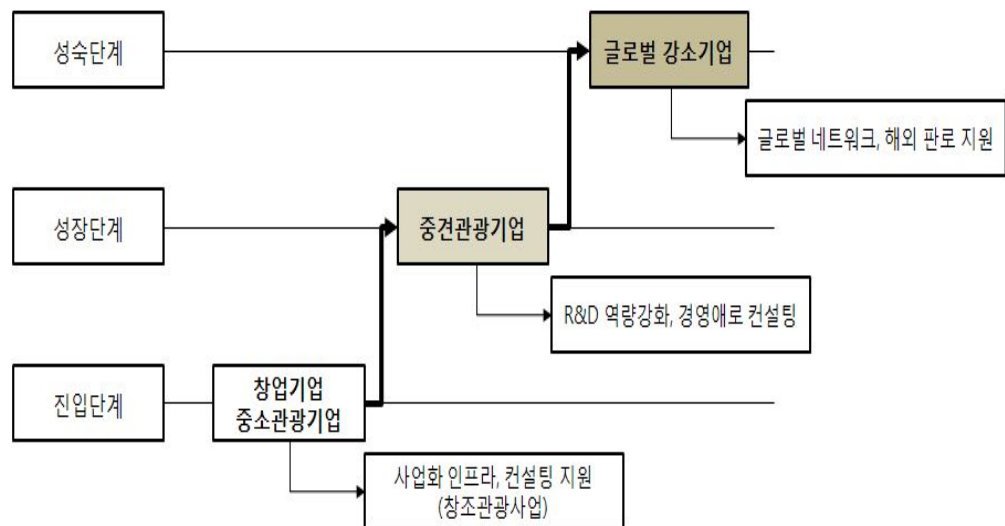


[그림 V-1] 지식서비스 여행업의 제도권 편입 구조(예시)

자료: 김덕기·김현주(2013).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중소관광기업 맞춤형 성장 사다리 구축

-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화 함
- 중소관광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R&D 역량 강화, 경영애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토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
- 관광부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기획에서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까지의 과정에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



[그림 V-2]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

자료: 김덕기·김현주(2013).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틀 구축

- 관광산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산업 환경을 조성함
-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유통 및 웹 사이트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틀을 구축함
- 최근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라 관광상품 유통 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련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예약 및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웹사이트 구축에 한계가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관광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함

■ 관광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관광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업체 중에서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등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성

장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

- 글로벌 강소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
- 한국형 글로벌 강소관광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공적 영역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함
- 관광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해외관광투자관련 정보수집, 해외투자 동향 및 진출 유망국의 정책·제도분석, 해외진출 사례 정보 제공 등 해외투자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함
- 관광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운영, 관광산업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대외공적개발원조와 해외직접투자와의 연계 강화, 해외진출방식의 다양화 모색, 해외투자 컨설팅 및 개발조사 기능 강화 등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함
- 동반진출형 해외관광투자 장려, 현지네트워크 구축·운영, 해외진출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함
- 관광산업 해외투자인력 양성, 국내 관광기업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관광산업의 해외투자 인식 개선 등 관광산업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함

■ 관광산업 서비스 R&D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투자 확대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관광산업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를 위한 관광산업 서비스 R&D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
- 이를 통해서 관광객 수요 및 소비 패턴, 관광활동 등 관광분야에서 축적된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관광서비스 R&D에 대한 전략적 집중 투자를 확대하고 실현가능한 R&D의 대대적 추진을 통하여 관광서비스 R&D와 연계한 관광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함
- 관광기획·운영, 관광표준 응용, 관광홍보기획·운영, 관광 비즈니스 분야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관광서비스 R&D의 지원을 명시하고, 관련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정의), 「조세감면특별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에 명확한 관광서비스 R&D 개념을 규정함
- 관광서비스 R&D 연구거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가 연계하여 서비스 R&D 기반을 확보관광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 이를 통해서 국내외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확대 및 서비스 R&D 과제별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확대를 병행함
- 초기단계인 서비스 R&D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정보 및 통계인프라 구축을 추진함

■ 관광산업의 혁신 지원체계 구축

- 관광산업에서의 IT활용도 향상을 위한 관광산업의 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함
 - 비즈니스 모델상에서 IT를 활용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 관광산업내부의 IT 전환을 지원함
 -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유통 및 웹 사이트 구축 지원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함
- 관광산업의 산업재산권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의 확산 및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내부의 혁신 유도하기 위한 관광산업내 산업재산권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관광산업의 혁신시스템 진단모델 개발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잠재능력 분석·평가 및 전략방향 진단 확산 등 혁신진단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
- 관광사업체 대상 혁신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혁신컨설팅 등을 지원해 주는 기관을 지정·연계함으로써 산업전반으로 혁신을 확대함

- 관광산업의 혁신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서 혁신을 통한 성공사례의 발굴 및 관광산업 내부로의 전파를 통해 관광산업 내 주체들의 혁신 참여동기를 고양하고 혁신을 유도함

다. 시장친화적 관광투자 활성화

① 배경 및 필요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 관광개발사업은 초기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일시적으로 투하되는 반면 수익의 발생 구조의 특성상 회수 시점이 미래시점으로 사업 초기 투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 감면 확대가 필요함
- 정부는 그간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의 감면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는 세제 감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 V-5> 관광개발사업 간접투자기구 세제 혜택

간접투자기구	등록세, 취득세	보유세	법인세
리츠(명목회사형)	50% 감면	재산세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면제	100% 면제
부동산펀드	50% 감면	일반법인과 동일	100% 면제
PFV	50% 감면	일반법인과 동일	100% 면제

자료: 한국관광공사(2007), 해남관광단지 투자제안서

- 특히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시설에 민간투자하려는 기업체까지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주체 육성 필요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사업주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건설사, 금융기관들이

PFV의 지분에 출자하고 금융기관은 PFV에게 PF 대출을 제공하게 되는 투자 구조를 지니게 됨

- PFV와 같은 투자도관체가 사업추진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현금흐름의 관리가 쉽고 사업과 관련된 소유권 확보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투자 자금 유치가 용이하게 됨

■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미흡

- 우리나라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계획 규모는 약 59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투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 내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개별 민간투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분양가, 도입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임
- 즉, 내·외국인 투자자가 관광개발사업에 투자를 기획할 경우 개별 지자체별로 협의하여 투자 대상 물건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또한, 국내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계획 및 실적의 추이, 민간투자 유치 시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한계가 나타남

② 세부 추진 과제

■ 관광산업 규제 개혁으로 투자 확대 유도

- 관광개발사업내 복합용도 건축물 건축 허용
 - 현재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에 한하여 주택과 숙박(부대시설이 없는 경우) 등의 복합 건축은 허용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비를 회수 및 재투자 유도를 위해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복합 건축 허용 확대
- 관광개발시설을 부대사업화하여 시설 복·융합 활성화
 - 산업단지를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관광개발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 사회기반시설사업이나 학교 및 의료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관광개발시설을 부대시설 또는 후속 사업 추진 허용하여
복·융합을 활성화

- 자연공원내 관광개발사업 중 숙박시설 설립 제한 완화
 -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문화 유산 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추진
- 호텔건립시 일반주거지역 채광방향 이격거리 완화
 - 일반 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 사생
활 보호를 위해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 확보 규정 삭제 또는 호
텔 부대시설(로비, 레스토랑, 휘트니스 등)은 제외

■ 관광투자 유치·지원 체계 강화

-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 통합 민원 조정 창구 운영
 - 광역지자체별로 관광개발사업의 민원 발생시 이를 합리적으로 갈
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 해결 시스템 도입
 - 민간투자자,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 인허가 공공기관 처리 후 사업 민간 양도 허용
 - 공공기관이 해당 관련 인허가 등을 담당하여 추진한 후 사업 일체
를 민간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인허가를 대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비용보전방식 시범 도입 검토
 - 공공성이 강한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최소비용보전방식을 도입
하여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 최소비용보전방식(MMC, Minimum Cost Compensation): 민간투
자사업의 연간 실제 운영수입이 부족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하는 방
식
-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별 인·허가 허용(전경련)
 - 대규모 관광단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초
기에 전체 조성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른 개발지연 및 업무비효율
해소를 위해 단계적 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 시행자와 차별)

- 관광단지와 달리 철도, 도로, 공원조성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 가능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 공식 지침서(formal manual) 마련
 - 민간투자유치 필요 관광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수익성 분석의 대내·외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설정 및 방법론 지속 개발
- 관광수요 예측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 추진
 -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유치 및 추진을 위한 관광수요 예측 가이드라인 보완 및 확산
- 관광개발사업 투자도관체 적극적 육성 및 활용 (PFV 등)
 -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의 PFV 프로젝트금 융투자회사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도관체 양성화 및 간접투자 지원 활성화
- 관광개발사업 투자정보뱅크(bank) 개발 및 운영
 - 민간투자유치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분양가, 도입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주요투자유치 프로젝트 홈페이지(KNTO) >



< 한국산업단지공단 E-cluster >

-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에이전트(Agent) 양성화

-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Agent 양성화와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
- 관광개발아카데미 과정 중 민간투자 Agent 양성 과정 추가 및 인증 등 제도 신설
-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 전담기구 재창설
 - 한국관광공사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던 관광투자유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
 - 관광투자의 종합적 지원, 관광개발사업 정보의 효율적 전달, 투자 수요자를 발굴 등의 역할과 기능 수행

■ 관광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제도 개편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조건 완화
 - 관광진흥개발기금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차등 적용을 통해 민간 투자지원 기능 강화
- 지역계정사업과 차별화된 광역계정사업 존치
 - 광역관광개발계획은 법정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국가주도사업인 바, 상기 계획의 위상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예산 존치 추진
- 관광개발사업 신설 법인의 무담보 대출 지원
 - 신설된 법인의 경우 신용 등급 및 담보력이 낮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투자 법인을 선정하여 일정 금액 내에서 투자자금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운영 자금의 경우도 동일하게 담보력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방안 도입
-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비 대출 보증 상품 개발
 - 토지보상비 대출보증상품 개발을 도입하여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자에게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민원 및 갈등 등을 방지하는 방안 검토
 - 사업시행자가 각종 기금 등에 보증부 대출로 토지보상비 등을 선지급하고 재정지원금으로 후상환하는 토지보상비 대출 보증 상품을 개발 검토
- 관광개발사업 펀드 설립 및 운용

-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공공기관 및 연기금, 보험사,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관광개발사업 펀드 운영
-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인증효과 등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

■ 관광산업에 대한 부담금 및 세제 개편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동일 세제 혜택
 -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게로 확대
 -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 적용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
 - 공유 재산의 임대와 동일하게 국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감면 또는 면제 등 제도 마련
-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방법 개선
 - 부담금 납부시기를 단계별 공사착공단계(실질적 산림훼손시기) 기준으로 분할 납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산지관리법) 개정
-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추진
 - 관광숙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시설물 면적별로 차등 인상 계획 변경하여 면제 또는 경감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7조(면제) 또는 제24조(경감)에 관광숙박시설 추가
- 호텔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연장
 - 2014년 일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특급호텔 50% 감면을 적용
- 관광개발사업 민간투자자 세제감면 인센티브 발굴
 - 관광개발사업중 민간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관광호텔, 리조트, 레저시설 등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표 V-6> 투자 인센티브 비교

구 분		관광투자기업	수도권이전기업	외국인기업
지원대상		관광(단)지 투자기업 -호텔, 관광시설 등	투자액 20억원 신규 고용 20인 이상기업	외국인투자 지분 30%이상인 기업 또는 외국인이 제1대주주
조세 감면	취득세	50%	7년 100%, 3년 50%	3~5년간 100%
	법인세	비감면	"	"
	재산세	"	5년간 면제	"
	임대료	30%	지원한도 50억원	최장 50년까지 100%

라. 관광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① 배경 및 필요성

■ 창조경제 실현의 수단으로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성 부각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창업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 됨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 7>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책

구분	추진과제	내용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앱(App) 창작터 운영 ·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앱 개발 교육, 창업팀 발굴 등 스마트 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해외 창업팀을 발굴하여 국내연수와 현지 보육을 지원 · 초기 자본이 없는 유망 창업팀에게 전문 투자자의 선별 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여 R&D 지원 확대

주: 중소기업청(2013) 내부자료를 참고로 연구자 재구성

② 세부 추진 과제

■ 스마트관광기업 창업학교 설립 및 운영

- 관광산업과 정보기술(IT)분야간 융합 영역의 청년 인재를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를 운영함
 - 중소기업청은 정보기술(IT)분야의 청년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한국형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를 운영함(2013. 8)
- 스마트관광기업 창업학교는 관광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앱, 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의 우수 창업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창업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과 자금, 창업 교육,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스마트관광기업 창업학교 졸업 후에도 자금 대출, 투자·보증 연계,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함

■ 관광 창업 지원 및 사회적 경제모델과 연계

- 관광정책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 및 확산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 중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모델 운영방식이 효율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함
- 문화관광축제 기획 및 운영 컨설팅, 개별 관광객 대상 지역 게스트 하우스 예약 및 공동 마케팅 등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틈새 영역을 발굴함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마을기업, 창조관광기업 등 기업형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체제 구축

- 관광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잠재적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국내 사회적기업은 총 913개이며, 이

중 143개가 문화·관광·예술 분야이며, 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사회적 기업은 총 18개임

- 지역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 협동조합, 마을 기업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가치를 지향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
-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 채널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고려사항 및 실무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별로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관광시장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착할 수 있는 판로 확보, 주체간 연계, 자원 공유 등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함

■ 관광기업 서비스 사이언스 경영 모델 개발

- 중소관광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 업체 단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중소관광기업간 공유 및 제휴 등을 통한 서비스 사이언스 모델을 발굴함
 - 서비스 사이언스란 서비스산업에 IT, 수학 분야를 접목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를 지칭함
 - 프랑스계 호텔 체인 아코르는 가격 전략을 기반으로 한 객실 재고 관리시스템 타스(TARS·Travel Accor Reservation System)를 구축하여 수익성을 제고함
 - 일본의 호시노 리조트는 자체적인 체인 운영뿐만 아니라 파산한 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아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함
- 관광호텔업 분야에서는 외국계 체인호텔이 아닌 국산 브랜드 호텔인 베니키아 및 1급~3급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객실재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규모의 관광호텔간 정보 공유 및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
- 이를 통하여 중소관광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마. 창의적 관광인재 육성

① 배경 및 필요성

■ 관광산업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 미흡

-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수급 불일치 현상이 지속됨
-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 등 노동시장의 수급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함
 -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하는 통계 중 관광분야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분야는 숙박 및 음식업에 한정되어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관광산업 인적자원의 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고용에 관한 기초 자료 생산을 위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통해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업종별로 고용 추세 및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요구됨

<표 V- 6> 관광산업 고용 관련 지수 및 통계 생산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관광산업 BSI & CS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체 인력사정 BSI - 조사주기: 분기별 조사
관광호텔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객실수, 연간 숙박객수(내외국인), 대시설이용객수(내외국인), 객실수입(내외국인), 부대시설수입(내외국인), 종사원현황(자격증 소지여부, 정규직·임시직 현황 등) 등 - 조사주기: 월별조사 - 결과공표: 「관광호텔운영실적」 연보발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통계 자료제공 서비스(http://www.tour.go.kr)를 통해 자료 공개
카지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매출액, 입장객, 종사원수 등 - 조사주기: 연간 - 결과공표: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자료 공개

■ 재정사업과 일자리 정책간 연계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산업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어 있으나, 기존의 평가체계는 ‘일자리창출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14년 관광분야의 재정사업 규모는 일반회계 약 54억원, 광특회계 약 3,711억원이며, 기금 약8,930억원으로 총 약1조 2,696억원 규모임
- 문화재정 2%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관광분야 재정사업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재정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한 기준이 부족하며, 실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가 추진,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양적효과 추정시 일관된 기준이나 구체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관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육성 정책 체계화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적자원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인력 육성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싱가포르 관광청은 인적자원청(WDA)과 공동으로 여행, 호텔, 카지노, 컨벤션 등 주요 분야별로 WSQ(Workforce Skills Qualifications System) 인증 시스템을 도입함
- 이를 통해서 관광산업 인적자원의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직무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의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관광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 필요

-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인력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됨
-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관광관련학과가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으나,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과 교재 개발이 미흡하여 인력 육성 전반에 걸친 비효율을 초래함

- 관광 특성화 고등학교 교재 중 국정교과서는 '관광일반' 과목만 개발되었으며, 전문교재가 필요한 부문은 인정교과서제 실시
- 관광특성화고의 커리큘럼과 교재개발 단계에서 관광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반영도를 제고함으로써 관광업계가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됨

② 세부 추진 과제

■ 관광산업 고용지수(TEI) 개발

- 관광산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휴양업 등 일자리 성장 규모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통계 조사 체계를 구축함
-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별 입직, 이직, 빈일자리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기별로 조사
- 고용통계조사의 로데이터를 관광인력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인 및 구직 수요를 효율적으로 연계함

■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시스템 구축

- 관광분야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 평가 지표를 개발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가지표는 일자리 창출 규모의 양적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양적, 질적 균형적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함
- 양적 성장 : 직, 간접 일자리 규모 확대
- 질적 성장 : 임금수준, 근로시간, 이직률, 만족도 등
- 관광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사후관리 단계별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함

■ 융복합 관광분야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육성 확대

-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분야와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임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융합), 국제회의·컨벤션, 여행(의료관광), 카지노, 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대상을 지정함
- 전문대학 및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관광 분야 및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대학을 지정 및 육성함
- 의료관광, 호텔, 카지노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을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 및 육성함으로써 예비 산업인력의 경쟁력을 제고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경력개발 체계 구축

- 관광 및 레저 등 4개 분야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함
- 관광 및 레저분야 16개 직종에 관한 NCS 개발(2013년 말)

<표 V-6> 관광분야 직무능력 표준개발 직종

구분	직종	비고
여행서비스	여행상품 개발, 여행상품 상담, 여행안내, 캐빈서비스	4
숙박서비스	기획 및 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 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5
컨벤션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3
관광레저서비스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 운영관리	4

- 관광분야 16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특정 산업별로 요구하는 직무능력에 따른 직무훈련 과정을 개발함
- 관광분야 직종별 핵심직무, 필요역량, 자격조건, 추천훈련 등을 체계화함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업종별, 분야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세부적인 직종별로 경력개발 경로를 체계화하고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예비 산업인력부터 고숙련 인적자원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훈련 및 취득 자격, 요구되는 직무 수준을 체계화하여 관광산업 종사원의 경력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여행업: 관광콘텐츠 개발 및 기획 인력, 프리미엄 가이드 육성
- 호텔업: 교육기회에 제약이 있는 1~3급 호텔 대상 교육과정 운영
- 국제회의업: 시장 확대를 위한 국제관계 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 카지노업: 투명성 요구 증대에 따른 Surveillance 육성

■ 관광산업 신규 유망직종 육성 및 자격제도 도입

- 관광산업 인적자원 육성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산업 내에서 유망한 직종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여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통해서 관광부문 교육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융복합 분야에서 시장의 수요가 발생하는 신규 직업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함
- 지역관광 스토리텔러, 산업관광 코디네이터, 음식관광 전문 안내사, 승마·캠핑·트레킹 전문 안내사 등 융복합 및 관광레저 분야 신규 직종 발굴

■ 정규 교육기관과 연계한 예비 산업인력 육성체계 구축

- 관광수요의 다변화 등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교육부와 연계하여 의료, MICE, 한류 등 융합관광 분야의 특성화 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해당 학교 졸업자의 관광산업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채널을 구축함
- 관광분야 정규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관광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함

- 관광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은 관광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
- 관광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장학금, 해외 교환 과정 참여 등에 대한 우선적 권한 부여

■ 관광특성화고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지원

- 여행업, 호텔업, 외식업, 관광외국어 등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광특성화고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함
- 분야별 협의체는 연구원, 특성화고 교사, 학계 및 업계 전문가(NCS 개발 참여인력)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관광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관광특성화고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지침을 토대로 교재개발 협의체 중심으로 분야별 교과서를 집필하여 관광특성화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